



서울대 同窓會 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발행인 金在淳
편집인 鄭宗澤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040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5 • FAX: 703-0755
인쇄처 한길기획

은행지로번호 7500875
http://www.suna.or.kr

제 254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9년 5월 15일

【1】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권민관·박재범·류중현·강원구·임세호·김대희·정주현·김경수·이예훈·권일동·이대영선수(커버스토리 5면)

143전 143패,
그러나 다시 도전한다

서울대 야구부 힘내라!

관객출추

메이저 리그에서 「맥과이어」가 타석에 서면 관중들은 「홈런」 신기록에 대한 기대로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 등장에 열광하고 신기록과 짜릿한 승리에 환호하는 것이 스포츠의 묘미다. 그래서 스타도 없고, 승리는 엄두도 못내고, 연패의 기록만 내는 서울대 야구팀은 화제의 대상이다.

승부의 세계는 비정하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한다는 비뚤어진 행태가 진정한 승부는 아니다. 꿈나무 시절부터 승부에만 집착해 기본기가 부족해 큰 재목이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스포츠계의 풍토이다.

대학 스포츠는 이미 「아마추어리즘」을 상실한지 오래다. 공부하면서 여가에 연습을 한 서울대 야구팀과 프로화된 타 대학팀과의 경기는 어른과 아이의 경기

나 다름없다.

143전 143패의 기록을 가진 팀이 1승을 위해서는 김일성대학과 교환경기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실업팀들은 서울대 야구팀에 1패를 당할까 걱정한다고 한다. 서울대에 지는 야구팀은 해체대상이라나... 주장에게 1승의 희망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지금 목

꿀찌에게 박수를...

표는 「폴드게임」을 당하지 않는 것이 당면 과제라 했다.

그래도 서울대 야구팀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당한 꿀찌에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준다. 순수한 스포츠 정신에 대한 호의와 격려이다.

아마추어 골퍼 박지은이 기말시험 때문에 98년 세

계대회에서 형편없는 성적을 냈다. 이것이 학원스포츠요, 아마추어의 본질이다.

스타 플레이어의 기량은 일정수준에 이르면 지능지수에 따라 우열이 생긴다. 모교 축구팀 출신으로 「스페인 월드컵」에서 대포알 솟을 쓴皇甫官(88년 師大卒)선수나 축구 명해설가로 이름을 날리는 李容秀(81년 師大卒·세종대 교수)위원같은 동문들도 있다. 야구팀에서도 이런 자랑스런 인물이 배출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서울대 야구팀은 더욱 분발해서 개성있고 매력있는 명문팀으로 육성돼야 한다. 도쿄대나 베이징대 등 명문 대학들과 교환경기 계획도 세워볼만 할 것이다.

모교에 야구팀이 있는지도 모르는 동문들도 많을 것이다. 경기가 있는 날 많은 동문들이 티켓을 사서 관중석에 앉아 교가를 흥겹게 부르며 모교 야구팀에 합찬 박수를 보내보자. 비록 연패의 기록이 이어지더라도... (斗)



영국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한국 방문은 우리나라의 큰 경사로서 우리의 국가위신을 세계에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 그동안 여왕과 영국에 관한 여러 언론매체의 보도로 우리 국민들도 말로만 들었던 영국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음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영국은 민주정치의 산실로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그러나 영국의 의회 민주정치가 처음부터 훌륭했던 것은 아니며, 지금도 예전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우선 국왕이 아직도 존재하고, 귀족제도가 살아남아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왕은 국가의 상징으로서 군림하고 있다. 귀족들은 세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원의 당연직 의원을 겸한다. 이러한 보수적 성향은 영국의 민주정치를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국왕은 국가 권위를 상징한다. 사실상 권력은 내각이 장악한다. 이 같이 권위와 권력이 병존하고 있는 까닭에 영국에서는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유럽의 군주국에서도 군주는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金榮國
모교 명예교수

정치적 안정에는 존경을 받는 권위체가 필요할 때가 많다. 역사상의 많은 정치가 원로정치인을 예우하고 정신적 차원에서 대의명분을 갖추려고 애쓴 것도 따지고 보면 권력을 권위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우리는 군사적 권력정치를 권위주의적 통치로 단정하여 그동안 권위주의의 청산을 위해 매진했고, 문민정치는 권위주의 정치와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주의 정치는 엄격하게 따져서 힘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정치 또는 독재정치를 뜻한다. 이러한 권력정치나 독재정치는 군사정권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며 문민정치에도 있을 수 있다.

IMF 한파로 우리의 관심이 경제에만 쏠려 정치가 뒷전에 밀려 났다는 감을 준다. 권위주의의 청산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권위를 추방했다. 가족을 지탱하는 가장의 권위도 가족 사회에서 추방되었고, 교단에서는 교권이 위기에 처해있다. 이래도 되는 것인지, 여왕의 방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현실을 반성하게 한다. (본보 논설위원)

모든 분야의 권위가 추방됐다

동문 칼럼

기업경영, 국제적 눈높이로 전환해야

새로운 천년기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동안 국경을 울타리 삼아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운영되던 각종 기준들을 보다 선진화되고 정교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전환하고 있다. 다시말해 우리나라의 기업경영은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제적 눈높이를 전제로 탈바꿈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 기업의 경영전략은 초과이익을 달성하고, 사업도 확장하는 욕심 많은 경영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기준의 규범을 준수하면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독과점적 초과이익 내지 부당이득보다는 적정 수준의 이익을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유럽식 경영방식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은 서양의 선진국보다 덜 투명하며, 덜 공정한 상태에서 정확한 계산보다는 외관적인 모양 갖추기로 초과이익을 실현, 정부정책의 보호아래 정경유착의 밀실경영으로 문어발식 기업군을 탄생시키는 경영형태를 취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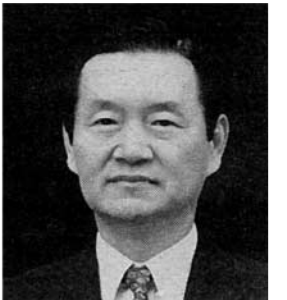
이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유럽식 경영의 특성은 기업가치 증대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유럽의 일반 투자자는 한번 주식을 사면 회사의 주인처럼 오랫동안 주주로서 기업을 지켜보고 단기적 이윤배당보다는 장래의 기업가치 창출에 더욱 관심이 많다. 이에따라 기업경영자는 장기적인 기업가치 중심으로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의 지식자산 축적에 의한 기업의 성장잠재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게 된다. 우리의 경제주체들도 장기적인 기업가치의 증대에 목표를 두고 기업의 사회성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구조조정에 자유시장 경쟁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개발경제이론에 의하면 어느 업종에서든지 최소한 경쟁기업이 셋 이상은 되어야 적정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경쟁시장이 된다. 한 업종에 참여하는 기업이 하나뿐이면 독점이윤을,

둘이면 과점이윤을 챙기기 때문에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개발금융기관들은 후진국의 경제부흥사업을 지원할 때 최소한 경쟁기업이 셋은 되게끔 창업을 권장했다. 우리의 경우에도 30여년전부터 독일재건은행을 비롯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 일반기업에 대출할 때 한 업종에 최소한 경쟁기업이 셋 이상이 될 때까지 창업기금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공정경쟁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경쟁환경을 조성해 과점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 자유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경쟁참가 기업 수를 셋이상으로 하는 배려도 따라야 한다. 국제개발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지원할 때 적용하는 셋 이상의 참가기업을 유도해 나가는 원칙이 강화될 때 공정가액(fair value)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져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풍토가 조성되며 국제수준의 상도덕도 자리잡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셋이상의 경쟁기업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경제주체들은 공정경쟁과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틀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기업은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초과이익이나 부당이득이 아닌 적정수준의 이익을 실현하면서 궁극적으로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차원의 가치경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卞重錫
(64년 商大卒)
(주)효성 상임감사

추억의窓

4·19직후 「새생활운동」 펼쳐 호화 요정·카바레 급습하기도

金相福(63년 文理大卒)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4월이 오니까 4·19가 생각난다. 그때 4학년이었다. 나 자신도 죽을 고비를 세 번 겨우 넘기고 동송동 문리대 캠퍼스로 돌아왔다. 李承晩정부는 무너졌고 새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새정부는 독재정치에 시달리다 풀려난 고삐 빠진 망아지 같은 국민을 다스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죽지 않고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들은 문리대 뜰에 앉아 심각한 토론들을 벌였다. 단순히 李正권이 張正권으로 교체됐다고 이제부터 이 나라가 잘 될 것인가? 국민들의 밑바탕에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없이는 몇 명의 정치인들이 권력을 교체했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견해들이었다.

학생들은 연구팀을 조직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여덟가지 분야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갔다. 밀수한 외제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잘못된 구매현상이나 공무원들의 부패상을 찾아 나서기도 했으며, 해이해진 사회에 침투하고 있는 간첩들의 위협, 개방에서 오는 퇴폐문화로 인한 가정파탄의 상황, 당시의 사회문제들과 정치계의 타락상까지도 모두가 조사의 대상이었다.

문리대 본관 대강당은 4·19의 열이 식지 않은 학생들로 꽉차 앉을 좌석이 없어 서있어야 했다. 한뼘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듣는 학생들의 가슴에 불이 붙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 열띤 학생들의 토론은 새생활운동이란 사회개혁운동으로 번졌다. 工大와 齒大와 師大에서도 가담했다. 이들은 각조로 조직되어 스스로 구호와 전단을 만들고 마이크를 지게에다 설치하여 메고 다

니면서 시민설득 작전으로 들어갔다.

국산담배 캠페인을 시작으로 공용차와 군대 자동차들의 불법사용을 중지시켰다. 타락한 정치인들이 모이는 효자동 호화 요정을 시민 제보로 습격한 일도 있었고, 카바레에서 춤을 추다가 들킨 주부들을 앉혀 놓고 책망과 함께 설득을 하기도 했다.

새생활운동은 부산, 대구, 대전, 춘천, 인천, 광주로 번졌다. 지방에서는 중·고등학생들까지도 가담했다. 코리아 타임즈의 보도로 일본으로 다니며 밀수를 해 돈을 벌었던 외국 장교들이 양심에 가책이 된다며 그동안 번 달러를 새생활운동에 써달라며 문리대 교정에 있는 학생들 사무실로 가져오기도 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이 남

아 있다. 앞줄 복판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 필자가 보이고 바로 옆에 孫鳳鎬(61년 文理大卒·모교 교수)동문이 보인다. 또 李亨基(62년 文理大卒·장로회 신학대학 교수)·徐永煥(61년 文理大卒·부산대신동교회 목사)·洪成賢(62년 文理大卒·한일신학대학 교수)동문 등이 보인다. 구호에는 「폭 썩은 사람들은 팬스홀 카바레 요정으로!」「휘발유 없는 나라, 자, 전차이용하자!」「일본가요 속에 日本刀 숨어 있다」「한국 사람이냐? 국산품 써라」 등이 보인다.



앞줄좌로부터 세번째 徐永煥, 한명건너 필자, 孫鳳鎬, 뒷줄좌로부터 첫번째 洪成賢, 여섯번째 李亨基동문.

특별기고

安定成長型 財테크·人才테크가 핵심

동창회, 2002-111 VISION PLAN 추진에 전력

李世震 본회 사무총장



IMF관리체제로 각박해진 현실속에서도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는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에 동참하거나 어려운 살림속에서 모은 돈과 재산을 장학금으로 쾌척한 노점상 할머니나 김밥 장사 아주머니의 善行美談이 우리의 가슴을 훈훈하게 적시고 있다. 정말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사랑과 봉사의 실천이다. 이러한 분들의 정성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淸涼한 감동에 젖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인은 늘 「누가 조국의 가는 길을 묻거든 눈을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의 가슴속에는 항상 「VERITAS LUX MEA(진리는 나의 빛)」라는 말이 새겨져 있다. 서울대총동창회에서 「Nobless Oblige(존귀할수록 책무를 다하라)」를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서울대인이 행동하고 실천해야 할 指標이자 德目이 아닌가 싶다.

현 국내는 경제·사회·교육 전반에 걸쳐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각 가정이나 개인은 財테크에 의한 소득·소비생활로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있다.

하지만 실업, 소득감소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급급한 나머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한 人才테크에는 소홀한 것이 현실이다. 돈은 일시적 재산일 수 있으나 사람은 영원한 재산이다.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를 보호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되며, 인재를 키운다는 것은 곧 나라를 일으키는 바탕을 다지는 것이다. 예로부터 「십년을 도모한다면 나무를

심고, 백년을 도모한다면 인재를 키우라」고 했다. 앞서 언급한 서울대인의 「Nobless Oblige」나 「母校의 發展이 祖國의 發展」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에 相應相通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2차대전 당시 영국 「이튼스쿨」의 재학생과 졸업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회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은 그 나라가 위험에 처할 경우 가장 선봉에서 심신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친 사실을 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현재 우리 동창회에선 동창회 활성화는 물론 모교지원을 가일층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2002-111 VISION PLAN」을 확정하고 그 추진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2-111 VISION PLAN」을 통해 다가오는 2002년말까지 기금 100억원을 조성, 동창회의 재정안정을 기하는 한편 동창회보 10만부를 발행·배포함으로써 동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활발히 하고자 한다.

특히 역점을 두는 사업은 모교 대학원생을 포함한 전체 학생수 1%에 해당하는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人才테크에 동창회가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재편될 것이며, 이에따른 사람의 중요성, 즉 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동창회 일부 임원의 관심과 성의나 사무처의 수익사업만으로는 그 성과를 달성하기 어렵다.

「To rule is to service(지배하려거든

봉사하라)」라는 말을 상기해보자. 즉 최고의 위치에서 최상의 엘리트로서 누리기만 하려고 한다면, 또 이에 吾不關焉한다면 후배들에 대한 장학사업과 인재육성을 위해 모교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창회의 취지는 물론 서울대인의 사회적 책무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진정한 人才테크는 모든 동문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때 실현되는 것이다.

동창회에서는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의 장학사업외에 人才테크의 일환으로 지난 96년부터 특지장학금제도를 설립, 「재단법인 관악회」내에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의 기부와 출연(현금 및 현물)에 의한 특지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다. 출연자는 출연기금이나 재산의 과실수입으로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직접 선정, 출연자 명의로 영구히 장학금을 지급하여 모교 사랑과 후배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특지장학금 내역으로는 아남그룹 金柱津회장 10구좌, 의료법인 길의료재단 李吉女이사장 2구좌, 상산학원 洪性大이사장 6구좌, 청아치과병원 金讚淑원장 2구좌, 일성(주) 張世一사장 1구좌, 수산그룹 朴柱鐸회장 1구좌, 대한간

호협회 楊銀淑재
정위원장 1구좌,

(주)흥인 鄭八道회장 1구좌를 출연했다. 또한 한시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추가 납입을 약정한 기금장학회로는 田溶星변호

사 1천만원, 치대불교동문회(齒佛會) 2천5백만원, 李世震 사무총장이 1천만원을 출연, 지정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장학금 수혜대상과 폭을 연차적으로 넓혀가고자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문 개개인의 힘이 한데 모아져 증폭될 때 후학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더욱 학업에 매진할 것이며, 더불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헌신하는 품성의 서울대인으로 커갈 것이다.

財테크도 필요 불가결한 것이나, 영원한 재산인 사람에 대한 투자, 즉 도덕성과 창의성, 그리고 패기를 갖춘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하는 人才테크에 서울대인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安定成長型 財테크이자 人才테크가 아니겠는가.

경제·사회 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人才테크에 쏟는 정성이 각별하면 각별한 만큼 그 성취와 보람은 더욱 값지고 빛날 것이다.

동창회 2002-111 VISION PLAN

년도	1998	1999	2000	2001	2002	비고
기금(억원)	58	67	77	88	100	재정 안정
회보 (발행부수: 만부)	8.3	8.7	9.1	9.6	10	조직강화 및 활성화
장학금 (재학생%)	0.7	0.75	0.85	0.92	1	모교지원 증대



예일학원 지부

동문 13명, 참교육 실천에 혼신 쏟아

예일학원지부(자매학원인 문화학원 포함)에는 13명의 서울대 동문이 있다.

예일학원은 지난 1965년 개교하여 현재 3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여자실업고등학교 등 5개의 학교를 두고 있다.

예일학원의 설립자이자 현재 예일여고, 예일여실교장인 金禮桓(49년 法大卒)동문은 설립 초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교훈을 敬天, 愛國, 愛人으로 정하고, 표어로는 첫째 「걷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다」, 둘째 「직업은 무엇이나 좋다. 제1인자가 되자」, 셋째 「최후에 웃는 자가



뒷줄 좌로부터 시계방향으로 崔允瓊·李蓮淑·金福惠·金聖眞·李鍾澤·李興鍾·李大求·金永佑·金熙天·金禮桓·尹白重동문.

글 : 李興鍾(58년 師大卒)간사

최후의 승리자다」로 정하였다. 설립자의 교육 정신은 信義, 奉仕, 友愛, 所望, 信仰, 健康이다.

예일학원은 사립 명문으로 「義에 살고 義에 죽자. 情熱과 能力을 다 바쳐 남을 위해 살자. 있을 때 존경하고 없을 때 칭찬하며 어려울 때 도와주자. 큰 꿈을 품고 힘차게 살아가자. 믿음으로 힘을 얻어 참되게 살아가자. 하루에 1만보씩 걷자」 등의 정신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인간을 길러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예일학원의 예일교육연구소장인 金熙天(81년 師大卒)동문은 하버드대학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교육자이며, 인재 양성과 연구에 열중하고 있다. 특히 예일학원에는 金동문을 포함, 박사학위를 가진 교사가 3명이며, 모두 동문으로 모두들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밖에 李大求(76년 音大卒)동문은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하고 있으며, 金聖眞(73년 家政大卒)·金仁園(81년 家政大卒)동문은 가정 교육을, 韓京喜(92년 大學院卒)동문은 미술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李蓮淑(94년 看護大卒)동문은 양호교사로 몸이 아픈 학생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金禮桓동문이 설립한 자매학원으로 문화학원이 있으며, 문화학원 역시 기독교 정신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문화학원에는 환일중학교, 환일고등학교, 환일고등학교 2부 등의 3개 학교가 있으며, 尹白重(60년 師大卒)동문이 환일고등학교 교장으로 金永佑(60년 法大卒)동문이 교감으로 재직중이다. 문화학원에는 그밖에도 金福惠(65년 文理大卒)·李鍾澤(68년 師大卒)·崔允瓊(95년 音大卒)동문 등이 근무에 열중하고 있다.

예일학원에서는 매주 금요일 獨步紀念館에서, 문화학원에서는 매주 월요일 문화학원 강당에서 학생들에게 학원 설립 정신에 입각하여 특강을 하고 있으며, 예일학원과 문화학원에서는 동문들이 모두 앞장서서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

특히 회원 모두 서울대인으로서의 높은 긍지를 갖고 있으며, 동창회의 발전이 우리 모두의 발전임을 깨달아 총동창회가 매년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등산 대회 등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우리 예일학원지부 동문들의 모습을 회보에 게재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단체 사진을 촬영할 때도 기쁜 마음으로 모두 참석했다.

건강을 지킵시다

齒力은 國力

尹興烈(65년 齒大卒)상아치과의원장



친애하는 장애인 동문들께 구강위생의 중요성과 건강한 입안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몇가지 조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결례를 무릅쓰고 장애인 동문이란 표현을 쓴 것은 「우리 신체의 귀중한 일부인 齒牙를 한 개라도 잃어버린 분」들을 지칭한 말이다.

입안은 소화기관의 첫번째 기관으로서 저작기능(씹는 기능)을 포함하여 발음기능(말하고 표현하는)과 심미기능(아름답게 보이는)의 세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

구강질환은 크게 치주질환(잇몸병)과 치아우식증(소위 충치)으로 분류되고 있다. 모든 병의 원인을 올바르게 앎으로서 근본적 해결책을 찾듯이 구강질환의 원인은 입안에 살고 있는 약 200종류 이상의 박테리아이다. 우리가 설탕을 섭취할 경우 치아에 균을 붙여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菌苔(Praque)라고 하는 물질을 형성케 한다.

설탕과 박테리아가 합쳐진 군태가 구강질환의 적이다. 우리 입안에는 28개의 치아(사랑니까지 포함 32개 치아)가 있어서 일본치과의사회에서는 「8020운동」(80세까지 20개의 치아를 지키자)을 하고 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더욱 과학적 근거를 갖고 설탕 덜먹기 운동을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무가당 제품이 시작된 계기도 이 때 부터이다. 설탕소비는 구강질환과 비례하게 된다.

건강한 입안을 유지하고 오래도록 아름다운 치아를 간직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탕 섭취를 줄여 「프라그」형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불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여 올바른 칫솔 사용법으로 이를 잘 닦아야 한다. 프라그는 치아와 치아사이, 치아와 잇몸 경계부위에 많이 부착된다. 더불어 칫솔은 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셋째, 정기적으로 구강검사를 하고 일년에 두번 이상 치석제거를 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예방에 관심을 두면 우리사회에 귀중한 동문들의 구강위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건강한 입으로 남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 밝은 사회를 이루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며, 입안의 28개 치아가 서로 이웃하며 상하로 나누어졌어도 함께 조화로운 기능을 하듯이 우리도 입안의 지혜를 배운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희망적이라 믿는다. 귀중한 동문의 건강이 우리나라의 힘이다. <상아치과의원 : 734-4965>

모임 採訪

약대 농촌봉사 서클 「소」

10년마다 변신·지도교수 사은비도 건립

아직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고, 가난한 농촌과 제대로된 농기계 하나 없던 그 시절, 모교 약대 57학번 동기들이 모여 어려운 농민들을 돕고자하는 그들의 꿈과 이상을 실천하기 위해 「소」라는 봉사서클을 창립했다.

金榮浩(61년卒·(주)대림시계 회장)동문을 비롯한 11명의 동기들은 계몽운동으로서의 농촌활동이 아닌 부족한 일손을 거들고, 농민들과 함께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농가 제일의 일꾼 「소」처럼 묵묵하게 돕자고 결의했다.

매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때쯤이면 봉사활동을 가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는 회원들은 될 수 있는 한 농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여비도 모으고 자체 조사도 철저히 했다고 한다. 이렇게 회원들은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에 일주일 가량 머물며 논에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고, 밭도 매는 등 확실한 도움이 되고자 온몸으로 노력했다.

실천하고 노력하는 모임이 되고자 했던 회원들의 정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학기 중에는 咸錫憲선생 등 당시의 저명인사를 초청, 사회문제를 비롯한 사상·정치에 관한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학생운동이 가장 활발했던 60, 70년대 모교 학생운동권 중에서 극렬한 운동가들의 대부분이 「소」 회원들이었다고 한다. 특히 1960년 4·19 당시 흰가운을 입고 데모대의 맨 앞에 장렬히 포진했던 회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큰 자랑이 아닐 수 없다고.

그러다 보니 「소」모임이 있다고 하면 정보국 직원이 나와 감시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강제해산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43기를 마지막으로 학교 내에는 「소」라는 농촌봉사서클이 사라졌다. 그러나 40년을 유지한 유구한 역사의 맥은 자연스럽게 졸업 동문들의 모임으로 변화되었고, 그날의 뜻을 잊지 말자는 마음은 변치 않았다.

세월이 흐른 만큼 사

람도, 모임도 변했다는 金회장은 「소」의 변화가 곧 우리 사회의 변천이라고 말한다.

『10년을 매듭으로 「소」모임은 변신해 왔습니다. 처음 10년은 꿈과 이상을 현실에서 재현하기 위해 노력한 낭만의 시대였습니다. 두번째 10년은 치열한 현실에 참여하는데 앞장서 행동하는 지성·개혁을 위해 몸을 던진 시대였습니다. 세번째 10년은 혹독한 시련의 시기로 좌절과 패배, 그리고 탄압과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이제 네번째 맞이한 10년은 폭우가 지나가고 남은 바위섬에서 과연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 고뇌의 세월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농촌도 많이 현대화되었으며, 봉사의 의미도 바뀐 만큼 「소」모임의 방향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金회장은 덧붙였다.

지금의 「소」가 있기까지 회원들의 든든한 아버지이자 엄한 스승으로, 때로는 방패가 되어주었던 모교 沈吉淳(65년 大學院卒) 명예교수가 지난 97년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을때 모든 회원들은 마치 부모를 잃은 듯 슬퍼했다. 특히 「소」의 지도교수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변변한 보직 한번 맡지 못했던 것이 못내 가슴 아팠던 회원들은 스승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98년 「소」창립 40주년을 맞아 경기도 안성 沈교수 묘소 앞에 작은 기념비를 만들었다.

화려하지도 빼어나지도 않은 울퉁불퉁한 자연석 그대로 「스승의 은덕을 기리며 이 비를 세웁니다」라는 조촐한 비문처럼 「소」회원들은 외형이 아닌 마음으로 그들의 뜻과 이상을 이어갈 것이다. (美)



뒷줄 좌로부터 열두번째 金榮浩회장, 한명 건너 申英浩총무.

모교 야구부·미식축구부에 체육기금으로 1천만원 전달



뒷줄 좌로부터 徐凡錫·金安重·鄭宗澤·鄭清喜·林炯斗·申仁湜·李鎭濟등, 앞줄 좌로부터 야구부 김경수주장, 미식축구부 백동인주장, 윤영길조교.

본회(회장 金在淳)는 지난 4월 16일 모교 야구부와 미식축구부 지원금으로 각각 5백만원을 전달했다.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 林炯斗회보 논설위원을 비롯해 모교 金安重학생처장, 鄭清喜체육부장, 徐凡錫사무국장, 야구부 申仁湜지도교수, 미식축구부 李鎭濟지도교수 등이 모교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노후된 장비와 열악한 환경속에서 훈련을 해온 야구부와 미식축구부에게 지원금을 전달했다.

66년에 처음 탄생한 모교 야구부는 68년에 해체됐다가 77년에 재창단됐다. 현재 야구부는 申仁湜교수, 李紀靑감독의 지도아래 휴학생을 포함해 24명의 선수들이 晝工夜訓(낮에는 공부하고 밤에 훈련함)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에 연습을 펼치고 있다.

타대학 야구부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선수생활을 해온 체육

특기생인 반면 모교 야구부 선수들은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들어온 순수 아마추어들이어서 체육교육과 학생은 물론 영문학과, 법학부, 사회학과, 경제학부, 경영학과, 전기공학부 등 일반학과 학생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작년 고려대와의 경기를 마지막으로 143전 143패의 전적을 기록한 야구부는 그동안 공식경기에서 한번도 이겨보지 못했다. 언제 이룰지 모를 1승 아니 쿨드게임으로 끝나지 않고 9회 말까지 경기를 치르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다. 이같은 도전정신은 「불가능은 없다. 다만 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미지 광고로 매스컴을 탄 적도 있다.

현재 야구부는 오는 6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전국대학야구선수권 대회와 7월 5일부터 열리는 실업팀을 포함한 백호기 전국야구선수권 대회 출전준비로 분주하다.

한편 야구부 주최로 5월 3일

부터 21일까지 제14회 모교 총장배 백호기 야구대회, 10월초에 제6회 총동창회장배 고교동문 야구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65년 농과대학을 중심으로 결성된 미식축구부는 90년 관악캠퍼스에서 통합 재창단됐다. 미식축구부 선수 26명은 농대 李鎭濟교수와 정윤식 감독의 지도로 96년이후 춘계 서울지역대회에서 3연승, 추계 서울지역대회에서 2연승을 거두었으며, 전국지역대회 4강에 진출하는 등 우수한 전적을 기록하고 있다.

미식축구부는 5월중에 춘계 서울지역대회에 출전하며 이 경기에 우승할 경우 6월 6일 대구에서 열리는 아카시안볼에 진출한다. 또한 9월초에 개최되는 추계 서울지역대회, 11월에 시작되는 동계전국지역대회의 승리를 위해 매주 화·목·토요일 오후 자연대 운동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본회는 앞으로 모교 야구부와 미식축구부의 경기일정을 본보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동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모교와 후배 사랑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모교 야구부와 미식축구부의 선전을 위해 동문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바란다.

남아리조나 지부

피닉스 포함 「아리조나」로 확대

남아리조나지부동창회(회장 吳玟煥)는 최근 피닉스지역 동문들과 협의를 거쳐 아리조나지부동창회로 통합,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또한 2000년에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회장에 宋相範(61년 法大卒)동문을 선출하고, 총무에 崔鍾泰(76년 工大卒)동문을 선임했다.

한편 동창회 통합 확대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6월초 재미동창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 투산 및 피닉스지역 동문의 결속과 동창회 활성화 증진을 기할 예정이다.

뉴욕 지부

첫 미술전 개최

뉴욕지부동창회(회장 宋寬鎬)는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교 미대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모아 소호의 Pleiades 갤러리에 전시회를 개최한다.

同會는 갤러리 임대료, 작품 설치, 보험, 리셉션 등의 비용을 부담하며 전시중 판매된 작품에 대해 수수료(40%)를 동창회 기금으로 전달받는다.

한편 同會는 6월 19일 열리는 재미평의원회의 다음날인 20일 뉴욕 링컨센터의 Alice Tully홀에서 「99 서울대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變)

동창회관 사무실 임대

지리적 여건과 주변 환경이 좋은 사무실을 임대합니다.

임대평수 : 50평, 60평
문의 : 702-2233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미술작품

陳松子 作



「엄마품」, 브론즈, 19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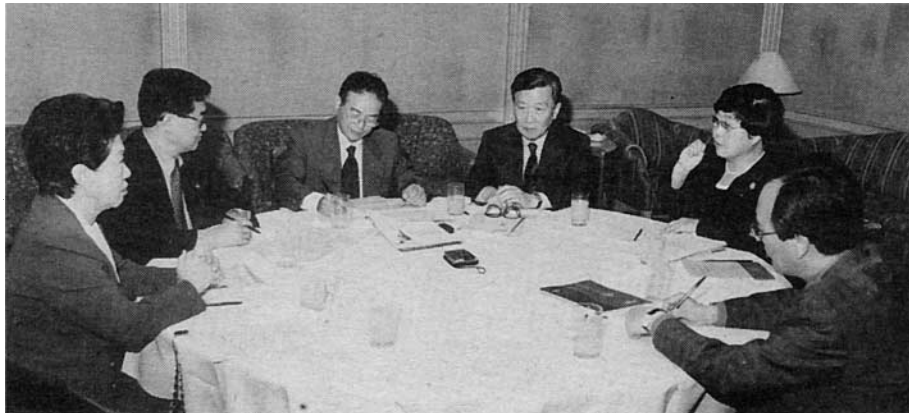
〈작가 약력〉

- △68년 모교 미대 조소과 졸업
- △80년대 여성미술 기획전
- △여류조각가 해외전
- △한국현대미술의 어제와 오늘전
- △84~92 한국현대미술 초대전
- △국전 특선2회, 제7회 신인전 장려상
- △제24회 서울올림픽기념 한국현대미술 초대전
- △96 서울국제 현대미술제
- △삿뽀로-서울 초대전
- △서울대, 서울여대 강사 역임
- △현재 동덕여대 강사

다들 물어봐
대부분
Meet

「청소년 문제」 해결 일등공신도 서울대인

다가오는 2천년대는 청소년이 주역이며, 국가와 민족의 장래는 청소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본보에서는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지난 4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소년 단체에 몸담고 있는 동문을 초청, 청소년의 현안 문제와 건전한 청소년의 보호 육성 방안 등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 회 : 李年憲(65년 文理大卒) 본보 논설위원

〈참 석 자〉

李喆玉(74년 保大院卒·한국청소년연맹 총재)
權泰竣(62년 法大卒·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이사)
李惠星(62년 師大卒·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卞柱仙(64년 師大卒·세계결속카우트
아·태 지역위원회 의장)
姜智遠(72년 文理大卒·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崔忠玉(75년 師大卒·한국청소년개발원 원장)

李年憲: 일반적으로 청소년 관점에서 필요한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나누었으면 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집단 따돌림(속칭 왕따)은 피해 학생의 자살과 가해 학생의 범죄자 전락 등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집단 따돌림 현상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李喆玉: 청소년들은 학교를 중심으로 또래 집단, 즉 친구관계가 형성됩니다. 이러한 또래 집단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신적 기반이자 활동 무대가 됩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따돌림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상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왕따 현상의 원인으로는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의 미발달과 적절한 지도 능력의 부족, 언론의 지나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기관의 청소년 상담

력이 필요합니다.

權泰竣: 집단 따돌림 현상은 따돌림을 즐기는 집단과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개인, 그리고 따돌림 현상에 대



李 年 憲

자극하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왕따의 최악성을 교육하고, 성인사회의 패거리문화·왕따문화를 개혁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李惠星: 우리 나라의 경우 우선 세가지 원인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원인과 학교 체제 및 청소년 개인의 원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 따돌림의 해결책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과 공동체 의식 개발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학생 적정수의 상담 전담 교사 확보와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卞柱仙: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래집단에 의한 압

고 규정하였습니다. 폭력과 약물 남용은 청소년이 가정이나 학교 등 자신의 현실에서 도피하는 하나의 대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참다운 가정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하고, 가정 파괴의 현상이 만연한 성적 지향적인 교육 풍토 속에서 이를 이기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약물을 남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의 욕구와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발산할 수 있도록 여가 선용의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고 성적보다는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합니다.

崔忠玉: 청소년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더욱 심각하리라 봅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한 규제장치와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히 약물 남용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전문 치료기관 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姜智遠: 청소년들이 성장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상처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 시급합니다.

權泰竣: 청소년은 듣고 배우기보다 보고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폭력과 약물

시 연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은 성장해서 사회에 복수를 한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긍정적 복수와 부정적 복수가 존재합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택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 기성인의 문제라고 봅니다.

李惠星: 입시와 성적위주의 교육을 탈피해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품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문제 청소년에 대한 제재, 감시 위주의 교도 정책을 건전한 품성 개발과 사회 적응 능력 개발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李喆玉: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성숙과 발달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



權 泰 竣

집단 따돌림 심각한 문제로 대두

“청소년은 커서 사회에 복수한다”

해 무관심하거나 방관하는 집단들이 만들어 내는 일탈현상으로 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의 공감각 삶에 대한 교육의 강화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교육이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데 실패한다면 집단 따돌림 현상은 제거되지 않을 것입니다.

李年憲: 미국에서는 왕따를 주도한 학생에게 문제의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력, 이른바 peer group pressure에 의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나 청소년 단체에서 각 개인별 성취를 유도하는 활동보다는 6~8명의 소집단 속에서 팀워크를 통해 그 활동을 성취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으며 또 역할극을 통해 왕따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개인을 힘들게 하는지 깨닫도록 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李年憲: 현재 청소년의 폭력이나 약물 남용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번하게 일고 있는 청소년 폭력과 약물 남용에 대한 예방과 대처방안을 부탁드립니다.

卞柱仙: 전 세계적인 문제로 UN은 2001년에서 2010년까지 10년을 「The International Decade for a Culture of Peace and Non-Violence for the Children of the World」라

姜智遠: 우리 나라의 왕따현상은 일본의 이치메가 국내 언론에 보도되면서 더욱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왕따라는 용어의 특이성이 왕따 공포증 또는 왕따를 정당화하는 풍조를



李 喆 玉

정책 입안에 관련단체 참여 바람직

눈높이 맞춘 프로그램 개발할 터

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화해야 하며, 학생 스스로의 또래 돕기 운동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열린 학교 경영이 시급합니다. 문제 발생시 덮어두려는 경향보다는 드러내 놓고 극복하려는 노

더불어 사는 삶의 교육 강화해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공간 늘리자

남용은 결국 기성세대로부터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보여주는 일탈과 비행에 대한 사회적 치유는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삶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보다 많은 선택의 기회와 참여를 위한 공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李年憲: 범죄의 뒀안길을 보면 범죄자의 유년 시절과 만드

력과 관심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에 기초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李年憲: 청소년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權泰竣: 현정부의 새로운 청소년현장과 계획은 청소년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시민의

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 청소년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청소년 정책을 국가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과 연계하여 지속



李惠星

지금 당장 사는 것이 바빠 내일에 대한 준비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李惠星 : 청소년 정책의 방향이 성인중심에서 청소년 중심으로 전환돼 청소년의 자율적 참여와 권익 증진을 주요 목표로 삼은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각종 시설 및 건물, 건설 사업의 추진보다는 전문 인력 및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에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崔忠玉 : 이제는 새로운 정보 지식사회에 걸맞는 정책으로 변모해야 하며, 세계 청소년들과 어깨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율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조적 에너지를 사회와

나. 특히 청소년 육성의 주요 기반인 수련 활동이 좀 더 내실화되고 질적으로 개선돼 청소년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한편 가정과 지역사회에서도 청소년 건전 육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姜智遠 : 교육은 교육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수련은 수련대로 청소년 사업이 분야마다 공유하지 못하고 제각기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국가적, 민족적 철학을 바탕으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李喆玉 : 정부의 한 기관 또는 시민 단체나 몇몇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단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卞柱仙 : 청소년이 건전하게 육성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이끌어 주는 바른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요즘 청소년 단체가 갖는 공통적인 어려움 중 하나는 청소년 육성에 헌신할 수 있는 비전있는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바른 지도



姜智遠

성인사회의 패거리문화 먼저 개혁

각종 유해환경 퇴치운동에 앞장 서

를 위해 청소년 지도사를 양성하고는 있지만 자격을 주는데 그치고 있고 후속 재교육은 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조건 청소년을 위해 헌신을 강요하기보다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청소년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李惠星 : 현재 실시되는 청소년지도사의 적절한 활용 방안 개발과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청소년 상담원 자격검정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정부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업무의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과 운영이 시급합니다.

李年憲 : 청소년 단체의 올바른 역할과 앞으로의 중점 사업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崔忠玉 : 각 단체는 일부 회원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을 위한

단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단체의 회원 중심으로 다소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열린 단체운동을 통해 자기 단체의 역량을 모든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卞柱仙 : 청소년 단체는 비공식적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이고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權泰竣 : 청소년들로 하여금 사회적 자아를 확립하게 하고

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두가 건전한 육체와 정신을 가진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청정사회로의 개혁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崔忠玉

약물 남용 대비한 치료기관 세워야

각 단체의 상호개방적 운영 요구돼

집단활동의 경험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 단체는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고 고유한 전문영역에 대한 활동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李喆玉 : 국가적인 지원속에 청소년 단체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이 도모돼야 합니다. 특히 교육개혁 정책과 더불어 청소년의 욕구와 21세기 새 천년에 부응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희 청소년 연맹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도전하는 신지식 청소년 육성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며,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들의

李年憲 : 마지막으로 동창회와 동문들에게 바라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崔忠玉 : 청소년들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입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동문들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필요합니다.

權泰竣 : 모교 동창들 가운데는 사회 각계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도적 위치에 있음은 남보다 한층 더 공적인 위치에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동문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함에도 공사를 엄정히 분별하는데 남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卞柱仙 : 동창회가 동문만의 친목 위주보다는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보다 의미있는 활동을 전개하는 동창회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젊은 동문들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많은 훌륭한 여성 동문들이 모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1년에 한번은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姜智遠 : 모든 동문이 청소년 사업가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국가의 미래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청소년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 누구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연 락 처〉

- 세계걸스카우트 아·태지역위원회 : 8299-512
- 청소년보호위원회 : 735-6254
- 한국청소년개발원 : 2188-8800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826-8548
- 한국청소년상담원 : 2253-3811
- 한국청소년연맹 : 841-9901

제재·감시보다 사회적응 교육 우선

학생 적정수의 상담교사 확보 시급

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합니다.

李喆玉 :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국가가 경험하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추진 주체보다는 실천을 위한 역동성을 확고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입안과 채택과정에서 관련대상과 기관 및 단체들의 참여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卞柱仙 : 현실적으로 청소년 정책은 정책으로만 그치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활동이나 생활 속에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개혁 없이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정책도 그 의미가 퇴색된다고 봅니다. 또 말로는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항상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청소년을 연구하는 기관도 알아서 자구책을 찾으라고 하는 식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는 청소년 정책이 바르게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모든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청소년 부분이 소외되고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며, 선거권을 주는 연령층을 하향 조정하는

연결시키면서 정보화 시대의 주역으로 육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李年憲 : 청소년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와 더불어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방안에 관해 말씀해 주십시오.

權泰竣 :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보다 자유로운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를 학습의 시기라고 볼 때 가정과 학교는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내용과 사회적 역할이 일치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는 미래를 위한 청소년의 바람직한 상에 대한 공감 위에서 사회·문화적 조건들을 조



卞柱仙

成績 지향적 교육보다 인성 중시

비전있는 지도사 재교육 필요하다

것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姜智遠 : 우리 나라처럼 청소년산업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나라도 별로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 천년은 지금의 청소년들의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성해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정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며 경험학습을 통한 사회교육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崔忠玉 :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

동 정

수 상

▲朴永夏(50년 醫大卒·을지재단 회장)=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음.

▲李善俊(52년 師大卒·일성 이준열사기념사업 회장)=지난 4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음.

▲金錫鍵(55년 農大卒·ESCAP 유엔기구 농업개발부문 자문관·태국 지부 동창회장)=최근 태국 정부로부터 농업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을 받음.

▲金錫營(55년 法大卒·태양종합상사 대표)=지난 4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80주년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받음.

▲韓相泰(55년 醫大卒·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명예 사무

처장)=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분야에서 처음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음.

▲李桓儀(58년 師大卒·백제예술대학재단이 사장)=지난 4월 10일 전남 영암 군민의 날 겸 왕인축제에서 「영암군민대상」을 받음.

▲李炫馥(59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지난 4월 22일 하얏트 호텔에서 국내 영국식 영어보급에 힘쓴 공로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음.

▲李昌遠(60년 法大卒·한국단자공업 사장)=지난 4월 15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올해의 「신산업경영 관리대상(생산부문)」을 받음.

▲洪斗杓(61년 文理大卒·한국관광공사 사장·本會 副會長)=최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관광협회(PATA) 총회에서 「금상(국제마케팅부문)」을 받음.

▲孫吉丞(63년 商大卒·SK그룹 회장·本會 副會長)=지난 4월 15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올해의 「신산업경영

인상」을 받음.
▲金炳東(66년 農大卒·모교 교수)=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음.

▲孫炳斗(64년 商大卒·전경련 상근부회장)=최근 미국 컨설팅기관인 데일 카네기 재단이 수여하는 「데일카네기 리더십상」을 받음.

▲徐敏錫(66년 工大卒·동일방직 회장)=지난 3월 17일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26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음.

▲沈奉燮(68년 工大卒·대우자동차 부사장)=지난 4월 15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올해의 「신산업경영관리대상(기술부문)」을 받음.

▲李文烈(68년 師大入·소설가)=지난 4월 13일 호암재단이 수여하는 제9회 「호암 예술상」 수상자에 선정됨.

▲安京洙(74년 工大卒·한국후지쯔 사장)=지난 4월 15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올해의 「신산업경영 관리대상(영업부문)」을 받음.

▲金定植(74년 醫大卒·제천 서울병원장)=지난 4월 7일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을 받음.

▲黃殷植(77년 工大卒·재우전자 사장)=지난 4월 12일 「신소프트웨어상품대상 3월상(멀티미디어콘텐츠부문)」에 선정됨.

▲全周省(78년 社會大卒·이화여대 교수)=지난 3월 27일 한국재정학회가 수여하는 제5회 「한국재정학상」을 받음.

▲趙炳源(80년 工大卒·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지난 3월 15일 세종대왕기념관에서 과학선현장영실선생기념사업회와 장영실과학대상조직위원회가 수여하는 제1회 「장영실과학연구 금상」을 받음.

▲高聖賢(85년 音大卒·한양대 교수)=지난 4월 10일 문화예술회관에서 난파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32회 「난파음악상」을 받음.

▲金榮希(87년 師大卒·MBC 프로듀서)=지난 4월 9일 서울언론인클럽이 수여하는 제15회 「서울언론인클럽 언론상(기획취재부문)」을 받음.

▲薛在矩(92년 農大卒·모교 암 연구센터 연구원)=최근 미국 암학회가 주관하는 「젊은 과학자상」 수상자에 선정됨.

▲尹景雅(96년 獸醫大卒·모교



자에 선정됨.

▲金熙(2기 AIP·현대산업개발 부사장)=지난 4월 15일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올해의 「신산업경영관리대상(기획부문)」을 받음.

이동·선임

▲高柄翊(47년 文理大卒·문화재위원회 위원장)=지난 4월 19일 국제기념물 및 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선출됨.

▲崔錫煥(50년 工大卒·세광종합기술단 회장)=최근 한국항만협회 제23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李姬鎬(50년 師大卒·대통령 영부인)=10월 서울에서 열리는 「99 서울 NGO(비정부기구) 국제대회」 명예

대회장에 선임됨.
▲李御寧(56년 文理大卒·前문화부 장관)=지난 4월 2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천년준비위원장에 선임됨.

▲孫在植(56년 法大卒·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최근 통일교육원에서 열린 통일동우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선출됨.

▲金榮鎭(57년 農大卒·한국유가공업회장)=지난 3월 10일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선임됨.

▲裴渡(57년 法大卒·효성그룹 고문)=최근 서울 강북지역 92개 로터리를 관장하는 국제로터리 3650지구 총재에 선임됨.

▲李仁子(59년 家政大卒·건국대 생활문화대학장)=지난 4월 17일 이화여대 삼성문화관에서 열린 한국의류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에 선출됨.

▲金環東(59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정보사회학회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에 취임함.

▲金建烈(59년 醫大卒·단국대 병원장)=지난 4월 14일 대한결핵학회 제23대 회장에 선출됨.

▲金洪鍊(60년 美大卒·동덕여대 교수)=최근 동덕여대 예술대학 학장에 취임함.

▲朴鑣實(60년 醫大卒·박산부인과의원장)=최근 서울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서울시대 학동창여성대표협의회 총회에서 회장에 재추대됨.

▲南正鉉(61년 工大卒·대우 ENG 사장)=지난 4월 8일 한국언어니어링진흥회 제12대 회장에 취임함.

▲尹永哲(61년 法大卒·前대법관)=지난 4월 1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됨.

▲李罕洙(61년 法大卒·前서울신문 사장)=지난 4월 9일 언론중재위원회 감사에 선출됨.

▲尹基重(61년 師大卒)=최근 용곡중학교 교장에 선임됨.

▲朴熊緒(61년 商大卒·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 한국위원장)=최근 포항제철 사외이사에 선임됨.

▲李鎭高(61년 商大卒·안동대 총장)=최근 서울 산업대 총장에 선임됨.

▲李萬烈(63년 文理大卒·숙명여대 교수)=최근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이사장에 선임됨.

▲朴雲緒(63년 文理大卒·LG상사 고문)=최근 주주총회에서 LG상사 부회장에서 선임됨.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수상

韓萬靖·李龍水 동문



李龍水

지난 4월 21일 과학의 날을 맞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대한민국 과학기술상」 시상식에서 韓萬靖(60년 文理大卒·아주대 교수)·李龍水(64년 師大卒·한림대 객원 교수)동문이 각각 「과학상」과 「진흥상」을 수상했다.

유기화학과 고분자화학 분야를 30여년동안 연구해온 韓萬靖은 천연핵산의 구조와 비슷한 핵산 유사체를 합성해 고분자화학 발전에 크게 공헌했으며,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한



韓萬靖

국고분자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동아일보 과학부장과 한국과학기술자클럽 회장 등을 역임한 李龍水은 과학이해 증진을 위해 지난 91년 한국과학기술자클럽이 주관한 세미나에 盧泰愚 前대통령을 초청,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과학기술 발전에 관심을 촉구시키는 한편 「과학기술진흥회」창립에도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최근에는 원자력 안전성에 관한 국민홍보와 연구활동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美)

(8면에 이어)

▲宋相現(63년 法大卒·모교 교수)=지난 4월 8일 백혈병어린이 후원회 제3대 회장에 추대됨.

▲朴昌培(63년 商大卒·코스닥 증권 사장)=지난 4월 7일 증권거래소 이사장에 선출됨.

▲許文道(64년 農大卒·前통일부 장관)=지난 4월 22일 케이블TV 불교텔레비전(BTN) 신입 사장에 내정됨.

▲鄭鏞仁(64년 法大卒·인천지법원장)=지난 4월 21일 서울 가정법원장에 임명됨.

▲金振範(64년 商大卒·前한외 중금 대표)=지난 4월 14일 한아름중금 사장에 선임됨.

▲柳東吉(64년 商大卒·승실대 교수)=최근 한국중소기업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魏聖復(64년 商大卒)=지난 4월 14일 조흥은행 행장에 선임됨.

▲朴東勳(65년 文理大卒·前상업은행 상무)=최근 경남은행 은행장에 선임됨.

▲康鳳洙(65년 法大卒·제주지법원장)=지난 4월 21일 인천지법원장에 임명됨.

▲金泰淵(65년 商大卒·前한국관광공사 사장)=최근 (주)미디어밸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됨.

▲朴魯英(65년 商大卒·前한일은행 감사)=지난 4월 13일 서울신용정보(주) 사장에 취임함.

▲安文錫(65년 商大卒·고려대 교수)=최근 규제개혁위원회에 위촉됨.

▲車東世(65년 商大卒·LG경영개발원 고문)=최근 LG경영개발원 인화원 원장에 선임됨.

▲崔圭鶴(65년 行大院卒·국무조정실 총괄조정관)=최근 국가보훈처장에 선임됨.

▲裴洵勳(66년 工大卒·前정보통신부 장관)=최근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에 초빙됨.

▲李康隆(66년 法大卒·조흥은행 행장대행)=지난 4월 14일

조흥은행 부행장에 선임됨.

▲朴忠生(66년 大學院卒·경상대 교수)=최근 경상대학교 총장에 선임됨.

▲金貴坤(67년 農大卒·모교 교수)=최근 포스코빌딩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학회 정기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선출됨.

▲洪性萬(67년 文理大卒·경향신문 사장·本報 論說委員)=지난 4월 1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촉됨.

▲申玄哲(67년 商大卒·한국은행 국제부장)=최근 한국수출입은행 이사에 선임됨.

▲崔永煥(67년 行大院卒·前철도대학 학장)=최근 세종대 부총장 겸 세종연구원 원장에 선임됨.

▲辛鉉雄(68년 文理大卒·문화관광부 차관)=최근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에 선임됨.

▲李鍾德(68년 文理大卒·대흥기획 전무)=최근 국제신문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함.

▲申吉秀(68년 經大院卒·명지대 교수)=최근 포항제철사의 이사에 선임됨.

▲許然(68년 法大卒·前외환은행 시애틀 지점장)=최근 영창악기 상임감사에 선임됨.

▲李相憲(69년 工大卒·한국NCR 사장)=최근 한국썬 마이크로시스템 사장에 선임됨.

▲姜萬洙(69년 法大卒·前재정경제부 차관)=지난 4월 7일 한국무역협회 상근부 회장에 선임됨.

▲盧成泰(69년 商大卒·前MBC 객원해설위원)=최근 한국경제신문 주필에 선임됨.

▲李章鎬(69년 商大卒·서강대 교수)=최근 국제경영학회 회장에 선임됨.

▲尹美容(69년 音大卒·국립국악고 교장)=지난 4월 24일 국립국악원장에 내정됨.

▲李起澤(69년 齒大卒·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지난 4월 17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24대 회장에 재선출됨.

제1회 전국대학 동문바둑대회

「서울대 A팀」 우승컵 차지

지난 4월 10일, 11일 양일간 서초동 바둑플러스에서 전국 24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천지산업이 주최한 제1회 전국대학 동문바둑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 모교는 75학번 이상은 A팀, 이후는 B팀으로 나누어 출전, 40~50대의 노장들로 구성된 A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崔勳(67년 工大卒·6단)대우건설 전무, 李楠基(72년

工大卒·6단)前코오롱 상무, 任東昱(73년 齒大卒·6단)안암치과원장, 申秉湜(78년 人文大卒·7단)SBS체육부장, 申鳳浩(79년 社會大卒·6단)서울시립대 교수, 柳忠均(82년 師大卒·5단)한성과학고 교사 등으로 구성된 A팀은 성균관대 B팀·전북대·성균관대 A팀·명지대팀을 차례로 꺾은 후 결승전에서 연세대팀을 3승 2패로 물리치고 첫 우승컵을 안았다.

▲朴贊一(69년 醫大卒·모교 교수)=2000년 10월 개원하는 국립암센터 초대 소장에 내정됨.

▲金勳承(69년 司大院卒·부산고법 부장판사)=지난 4월 21일 제주지법원장에 임명됨.

▲徐靖憲(69년 行大院卒·특허청 특허심판장)=최근 한국반도체산업회 정기총회에서 상근부 회장에 선임됨.

▲崔成載(70년 文理大卒·모교 교수)=최근 한국사회복지대학협의회 제22대 회장에 선출됨.

▲尹寶玉(70년 法大卒·인하대 법대학장)=최근 인천광역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재선임됨.

▲林鍾沅(70년 商大卒·모교 교수)=최근 포항제철 사외이사에 선임됨.

▲崔東洙(70년 商大卒·조흥은행 상무)=지난 4월 14일 조흥은행 부행장에 선임됨.

▲李寅源(70년 新大院卒·문화일보 부사장)=최근 문화일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에 선임됨.

▲林炯淳(70년 齒大卒·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지난 4월 17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제4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부회장에 재선출됨.

▲洪錫炫(72년 工大卒·중앙일보 사장·本會 副會長)=최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정기총회에서 부회

장에 선임됨.

▲金鍾大(72년 法大卒·부산지법 부장판사)=지난 4월 21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임명됨.

▲李俊求(72년 商大卒·모교 교수)=지난 3월 27일 한국재정학회 정기총회에서 15대 회장에

선임됨.

▲趙學國(72년 商大卒·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장)=지난 4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장에 내정됨.

▲金仁圭(73년 文理大卒·KBS 부산총국장)=최근 KBS 정책기획국장에 선임됨.

▲鄭仁植(78년 工大卒·정인갤러리 대표)=지난 4월 1일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의 모임」 제3대 회장에

선출됨.
▲李鍾八(80년 經營大卒·동원증권 이사)=최근 동원창업투자 사장에 선임됨.

▲姜吉夫(84년 環大院卒·한국감정원장)=지난 3월 26일 성균관대학교 행정고시 출신 모임인 성지회(成

志會)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임됨.

▲丁時采(9기 ACAD·前농림부장관)=지난 4월 23일 초당대학교 제5대 총장에 취임함.

▲李和一(13기 AMP·조선내화 부회장)=지난 4월 2일 조선내화 회장에 선임됨.

▲鄭崇烈(20기 AMP·한국도로공사 사장)=지난 4월 7일 지능형교통시스템 Korea 초대 회장에 선출됨.

▲蔡洙三(39기 AMP·현대방송 사장)=지난 3월 25일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업의 회장에 선임됨.

행사·출간

▲金炳洙(49년 法大卒·교보생명 교육문화재단 이사장)=지난 4월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21세기 국민교육진흥을 위한 교육공동체 건설」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함.

▲邊衡尹(51년 商大卒·한국사회발전시민실천협의회 대표)=지난 4월 16일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정치개혁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총회를 개최함.

▲林光洙(52년 工大卒·임광토건 회장·工大 同窓會長)=지난 3월 27일 세종호텔에서 충북출신 우수대학

생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함.

▲白樂皓(52년 音大卒·모교 명예교수)=지난 4월 16일 錦湖갤러리 금요콘서트에서 데뷔 50주년 기념음악

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최근 「새로운 밀레니엄의 도래와 경쟁정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짐.

▲金貞姬(56년 文理大卒·한국MCL 연구회 회장)=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된 제2회 세계요료법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함.

▲李鍾成(58년 商大卒·LA KTAN-TV 사장)=지난 4월 12일부터 17일까지 백상기념관에서 「百想追念 李

鍾成展」을 가짐.

▲金正淑(59년 師大卒·숙난전고문)=지난 4월 1일부터 25일까지 경동갤러리에서 달걀을 소재로 한 여섯번째 개인전을 가짐.

▲任貞彬(61년 家政大卒·한양대 생활과학대학장·한국가정생활개선회 회장)=지난 4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후생활 준비교육을

(10면에 계속)

(9면에 이어)

위한 대토론회」를 가짐.

▲李壽成(61년 法大卒·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지난 4월 8일 원광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음.

▲千慶松(62년 法大卒·前대법관)=최근 법무법인 화백의 고문변호사로 선임돼 업무를 시작함.(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0-1 정곡B/D 본관 5층)

▲裴茂基(62년 商大卒·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지난 4월 16일 신라호텔에서 「노사관계 당면과제와 21세기를 향한 노사협력 증진방안」을 주제로 강연함.

▲安武赫(62년 大學院卒·한국발전연구원 이사장)=지난 4월 23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林東源(61년 文理大卒)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초청, 「한반도 냉전종식의 길」을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韓昇洙(63년 行大院卒·한영미래포럼 회장)=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하얏트호텔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한을 맞아 제7차 한영미래포럼 회의를 개최함.

▲李茂根(64년 農大卒·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지난 4월 20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평생직업교육제도 구축과제」를 주

제로 정책포럼을 가짐.

▲南仲九(64년 文理大卒·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장·本報 論說委員)=지난 4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한반도 냉전종식」을 주제로 제47회 조찬대화를 가짐.

▲吳平煥(65년 農大卒)=최근 지병으로 사망, 유자로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육재단에 장학금 3억원을 기탁함.

▲田允喆(65년 法大卒·공정거래위원장)=지난 4월 16일 순천향대에서 시장경제 창달에 기여한 공로로 명예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음.

▲權根述(68년 文理大卒·남북어린이어깨동무 이사장·한겨레신문 논설고문)=지난 4월 17일 서울 동숭동에서 「어린이평화의 집」개소식 및 후원의 날 행사를 가짐.

▲金信福(68년 師大卒·모교 행정대학원장)=지난 4월 24일 모교 행정대학원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의 변화와 행정학 교육」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가짐.

▲南宮鍾(69년 法大卒·예금보험공사 사장)=지난 4월 15일 은행연합회관에서 「차등예금보험료율제도」를 주제로 공청회를 가짐.

▲尹錫正(71년 法大卒·前서울고검 검사)=최근 변호사 사무실을 개소함.(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6 기영B/D

501호, 전화:532-6789)

▲金有源(74년 新大院卒·서경대 교수)=최근 「100년뒤에 다시 읽는 독립신문(경인문화사刊)」을 출간함.

▲李長熙(75년 大學院卒·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장)=지난 4월 23일 프레스센터에서 「남북한 군사력평가와 적정군사력 수준」에 관한 학술포럼을 개최함.

▲安炳燦(75년 新大院卒·경원대 중앙도서관장·本報 論說委員)=지난 4월 9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논문 「신문발행인의 권력과 리더십(나남출판刊)」출판기념회를 가짐.

▲李孝成(75년 新大院卒·한국언론정학회 회장)=최근 춘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함.

▲延炳善(76년 工大卒·前한새벤처투자 대표)=지난 4월 8일 한국아이티벤처투자자를 새롭게 설립함. (주소: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27 경암B/D 11층, 전화:3452-9494, 팩스:3452-9493)

▲柳一鎬(81년 社會大卒·한국조세연구원장)=지난 4월 16일 한국조세원 대강당에서 「자영자 소득과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가짐.

▲姜鍾杓(83년 社會大卒·강종표법률사무소 대표)=최근 사무실을 이전함.(주소: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8 행림B/D 202호, 전화:592-5020, 팩스:592-5303)

▲權如鉉(85년 美大卒·원광대 강사)=지난 4월 8일부터 23일

까지 갤러리 우덕에서 「직설적 감상」을 주제로 작품전을 가짐.

▲姜聲郁(84년 社會大卒·한국컴팩컴퓨터 대표)=최근 실직자 재취업위탁기관인 평화아카데미에 컴퓨터 28대를 기증함.

▲金惠林(85년 美大卒·한국여류화가회 회원)=지난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박영덕화랑에서 콜라주 형태

위에 유화를 입힌 독특한 표현방식의 「본질현상展」을 가짐.

▲朴永根(88년 美大卒)=최근 금산갤러리에서 「만찬」과 「여정」 등의 연작시리즈를 중심으로 개인전을 가짐.

▲林成柱(42기 AMP·애경화학 사장)=지난 4월 16일 웨라톤웨커힐호텔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리셉션을 가짐.

(정리=李美連 기자)



華 燭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촉을 밝힐 동문을 소개한다.

*유기성 군(86년 社會大卒)·임명숙 양=5월 15일 12시30분.

*김정하 군(92년 社會大卒)·최경옥 양=5월 15일 14시.

*강신학 군(94년 自然大卒)·문연주 양=5월 15일 15시30분.

*박준철 군(86년 自然大卒)·최선실 양=5월 15일 17시.

*김세배 군(97년 工大卒)·김세경 양=5월 21일 13시00분.

*전병득 군(96년 自然大卒)·최윤정 양=5월 22일 14시.

*박준동 군(93년 社會大卒)·이경선 양=5월 22일 15시30분.

*박선배 군(96년 工大卒)·윤혜영 양=5월 23일 12시30분.

*임혁진 군(92년 經營大卒)·김희선 양=5월 27일 18시.

*김화경 군(95년 師大卒)·김성은 양=5월 29일 14시.

*김기석 군(95년 保大院卒)·박혜진 양=5월 29일 15시30분.

*조영호 군(88년 師大卒)·김혜경 양=5월 30일 11시.

*최준호 군(93년 工大卒)·김지영 양=5월 30일 12시30분.

*손영철 군(96년 自然大卒)·김정애 양=5월 30일 14시.

*한세진 군(86년 工大卒)·김수연 양=6월 5일 15시30분.

*강홍구 군(96년 經營大卒)·이수희 양=6월 12일 14시.

*김상호 군(97년 人文大卒)·곽은영 양=6월 13일 12시30분.

동창회관 5층 관악홀의 예식에 대한 사항은 하안드레스(전화 02-716-2230)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星泉文化財團 柳達永 이사장

「好學爲公」정신으로 都心에 農心 심어

원로농학자로서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星泉文化財團 柳達永(36년 水原高農卒·모교 명예교수)이사장. 이사장실에 들어서면 서예 책상과 더불어 세계 여러 곳에서 모은 자그마한 돌, 부처상, 화병들이 눈에 가득히 들어온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틈틈이 나비·새가 그려진 우표도 수집한다. 아호 星泉은 「仰觀極星 俯聽石泉」 즉 고개들어 북극성을 올려다보고 구부러 바위샘 소리를 들으며 항상 배운다는 뜻이라고. 재단 창립 8주년을 맞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柳이사장을 여의도 라이프오피스텔에서 만나보았다.

— 재단의 설립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지요.

『강의실에서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농민의 고충을 피부로 느끼며 직접 농사를 지어 시범을 보여야겠다는 생각으로 60년부터 수원시 경계선의 지지대고개 산비탈을 개간, 실험농장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황무지를 과수원, 목장으로 열심히 일구었는데 90년경에 고속도로 계획에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값지게 쓸 것인지 궁리하던 차에 이웃사촌인 具常 시인으로부터 鷺山 李殷相선생이 남한산성 밑에 「민족의 도장」을 지어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려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점점 황폐해져가는 우리의 정신문화 개간을 목적으로 91년에 재단을 창설했습니다.』

— 주요 사업인 생활문화아카데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화려한 장미는 모두 야생 찔레의 뿌리에 접목한 것입니다. 좋은 과수들이 야생나무 뿌리에 근원을 둔 것처럼 인간도 바르게 자라 충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야생나무에 해당하는 고전에 현대문화정신을 접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삼국유사」, 「노자」, 「바가바드 기타」, 「주역」, 「판세」, 「코란」 등의 고전강좌를 통해 동서고금의 대승을 만날 기회를 주고 있지요.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 폭넓고 국제적인 안목을 길러주기 위해 동서양을 망라한 온 인류의 고전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미래학 강좌를 개설하고 최근 이슈가 되는 시사적인 주제를 선정, 특강형식으로 현대 생활문화강좌도 열고 있습니다.』

— 아카데미를 운영해오면서 얻은 보람이나 아쉬움은.

『아카데미의 교훈을 「배우자·사귀자·봉사하자」로 정했지요. 수강생들에게 내가 강조하는 것 중의 하나는 「만남의 중요성」입니다. 인간은 모두 만남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梁在謨 前연세대 부총장, 奇世勳 前서울고법원장, 尹炳哲 하나은행 회장, 崔桴旭 한국철도물류협회 이사장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유명인사들이 아카데미과정을 수강했으며 1천2백여명의 수강생들이 자체적으로 동문회를 결성,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있어 흐뭇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재단의 재정상 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재단에서 해외강좌 여행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카데미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창의적인 생활문화의 교육 및 연구영역 확대를 위해 해외강좌 여행을 시행하고 있어요. 93년부터 매년 1회 아카데미회원을 주축으로 외국석학들의 특강을 듣고, 현지의 교육기관 및 연구소를 방문해왔는데 올해는 8월 초 러시아,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지의 문화유적지 탐방과 미술관 특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원로농학자로서 농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경

제 이전의 산업, 즉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덴마크, 스위스, 네덜란드 등 세계 복지국가들의 바탕은 농업입니다. 農心이 저변에 깔리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가 되기 힘들고 농심이 없는 나라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빨리 부패하게 됩니다. 「農心은 곧天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실하고 건실하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일체가 되어 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농심을 가지고 농업을 육성하는 나라는 국민성이 건강합니다.』

— 평소 생활 철학은.

『저는 10대 후반 양정고보 시절 이후 학문으로 스스로를 닦아남을 위해 산다는 의미의 「好學爲公」을 좌우명으로 삼아 왔습니다. 공자의 好學精神과 예수와 부처의 愛隣, 普施의 마음을

실천하자는 뜻이지요. 나의 이 소망은 어린 술모종이 구름을 어루만지려는 마음(稚松拂雲心)으로 한평생 몸바쳐온 農心교육을 都心の 작은 텃밭에도 실천해보자는 것입니다.』

— 米壽가 지난 나이에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내일 모레면 90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 증진법보다 오히려 노세 지연책을 강구하며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미 찰떡과 우유 한 컵, 그리고 무·양파·당근·양배추·시금치 등의 채식을 수십년째 아침식사로 하고 있습니다. 섬유질을 자주 먹어 腸속의 숙변을 청소하고 연한 소금물로 목과 콧속(鼻腔) 그리고 항문도 깨끗이 씻어내지요. 저녁 9시면 잠자리에 들어 새벽에 일어나 만보기를 허리에 차고 산책합니다. 비둘기와 참새에게 모이를 주며 마음을 다스리지요. 무엇이든 잘 먹고, 언제나 달게 자고, 날마다 상쾌하게 배설하는 快食·快眠·快便의 三快생활이 최선의 건강비결입니다.』

목을 죄는 것 같은 넥타이대신 셔츠 위에 느슨한 타이슬링을 멋지게 하고 있는 柳이사장. 아흔을 바라보면서도 청년시절의 신념과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비둘기와 참새할아버지로 불리우는 그에게서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성천문화재단 : 786-1754)

(變)



선배의 모습에서

미래의 나를 찾는다

俞香淑(72년 藥大卒)KIST생명공학연구소 책임연구원

얼

마전 정년을 맞은 교수님을 뵈러 관악캠퍼스에 들렀다. 교수님은 내가 석사과정에 있을 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그 당시 학문에 뜻을 둔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학문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였다. 그 교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졸업한지 30여년 가까이 되는 지금 나는 한사람의 전문인의 인생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꼈다.

전문인 되기까지 평생 걸려

나는 공부가 하고 싶어 혼자서 겁없이 유학길에 올랐었고 유전공학이 막 시작되던 1970년대 후반에 한국에서는 전혀 생소했던 이 분야를 접하고 고생해가면서 배웠다. 또한 귀국해서 나름대로 유전공

학분야에서 앞서가는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의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생활을 하고 있다.

교수님을 보면서 한사람의 전문인이 걸러지기까지는 평생이 걸리며 이 한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사회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젊은 시절 몇몇 교수님들이 하얀 가운을 입고 강의실에서 강의하던 모습을 보고 나도 열심히 학문의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보면, 후배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인이 되기 위한 틀을 선배들의 모습에서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나는 과학을 하는 전문인으로서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일을 하며 후배들을 지도하고 같이 연구하는 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내가 느끼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후배들에게 전문지식을 잘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연결고리를 자아내는 여성들의 역할이 사회 밑바닥에 흐르는 인성의 근본을 이루는데 더욱 중요하다. 아이들의 교육이 학교나 사회에서 이루어지기 이전에 집안에서 특히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을 불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학교나 사회에서 배운다 하더라도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가정의 근본 틀을 유지하는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기본 틀을 잘 유지할 때 전문인으로서의 역할도 빛이 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인성교육 위한 엄한 때 필요

요즘은 학교에서 「왕따」다, 「자식이 어버이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뉴스를 접할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틀이 망가져 있으면 그럴까하고 생각한다. 이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에 대한 어머니들의 따뜻한 사랑과 엄한 때의 부족때문이라 생각하며, 개인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깨닫는다.

부지런히 살아오신 교수님의 모습에서 내가 우리 후배에게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내 아이들이 이러한 좋은 점을 보고 자신이 느껴서 행동하고 바르게 살도록 무언중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머니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사회를 바르게 하는 근본이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

선배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만드는 틀을 얻게 되고 나의 모습이 또 나의 후배들의 거울이 됨을 생각할 때 현재의 내가 하는 일과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어디 정범구만한

여자MC 없나요?”

芮美蘭(85년 人文大卒)KBS TV1국 PD

작

년 6월부터 시사토크프로그램 「정범구의 세상읽기」를 연출해왔다.

「아이 키우기」란 막중한 임무에 매달려야했던 지난 몇 년간, 출장 덜 가고 어느 정도 규칙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양물에 몸담아 왔었다.

남녀와 가정을 둘러싼 온갖 이야기가 펼쳐지는 「아침마당」(일명 「아줌마당」) 제작은 참신한 아이템 개발과 새로운 구성 등으로 매년 고민해야했지만, 가정사 관련 내용이 대부분인지라 제작자로서 받는 자극은 약했고, 시간이 갈수록 여성·가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회의에 빠지곤 했다.

쌈박한 아이템 찾아 동분서주

언젠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리라 이를 악물고 속앓이한지 몇 년째!

아이들이 내손을 어느 정도 벗어날 즈음, 「여성PD=여성 대상 프로그램 제작」이란 틀에서 벗어나 「세상공부」를 하게 됐다.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가볍고 들뜬 프로그램들의 홍수 속에서, TV에서 소외됐던 지식인, 소수지만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여론주도층을 주시청 대상으로 한 「진지한 내용의 1:1 밀착 시사토크 프로

그램」으로서 색깔 찾기에 고민했었다.

그동안 TV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신영복, 백낙청, 박노해, 김지하, 리영희...), 시사적 중심인물들(이갑성, 정몽헌, 김태동, 이회창...)을 과감하게 출연시켜 변화와 개혁의 시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올바른 문제제기와 방향제시를 목표로 제작했다. 다행히 언론과 힘있는 시청자들의 격려에 힘입어 프로그램이 없어질뻔한 위기도 넘기고 광고도 붙어 안정케도에 진입했다. 게다가 언론노동조합연맹에서 수여하는 「민주언론상」까지 받게 되어 어깨는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지성의 내음이 이토록 향기로운 줄 미처 몰랐다』는 어느 시청자의 소감처럼 평소 글로만 만났던 분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내게도 무척 소중한 경험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 자신에겐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며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는지!

매주 다른 주제, 쌈박한 아이템 찾고 연사 섭외하랴, 그들의 생각과 문제의 본질을 바로 읽고, 바로 전달하기 위해 수북히 쌓인 자료와 씨름하고 구성하랴... 「바쁘다 바빠!」를 입에 달고 생활하게 되었다.

한동안 「엄마, 왜 이리 늦으세요?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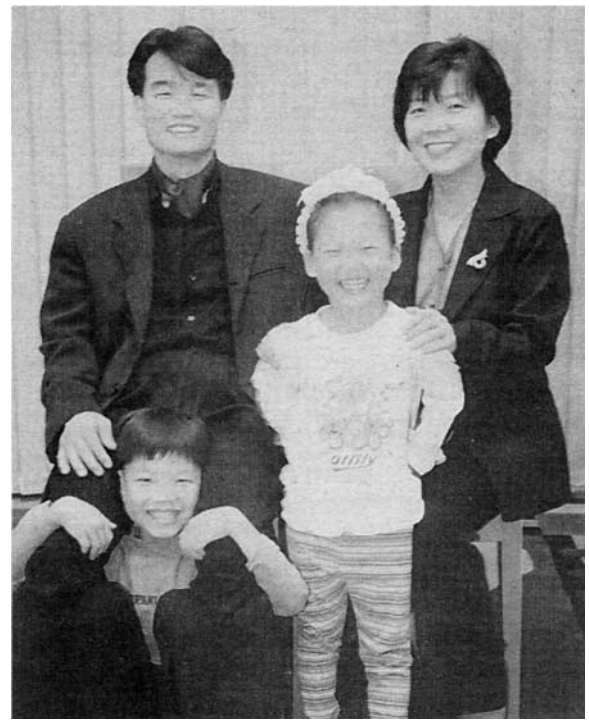
가 바빠서 싫어요!」하는 아이들의 불평이 늘더니만, 어느새 「엄마 힘드시죠? 제가 만득이 시리즈도 들려 드리고 커서 보약도 사드릴게요」하는 전화가 편집하는 날이면 곧잘 울려댄다.

사실 「당신 많이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라며 늘 격려해주는 남편이 내겐 정말 큰 힘이다. 「그래, 〈일과 가정, 그리고 나와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하는 문제는 모든 여성들에게 주어진 현실적 과제야. 남녀의 차별이 현존하는 일터와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현실의 여건을 하나씩 개선해 가는 것은 얼마나 의미있는 일인가!」 힘들 때마다, 또 남편과 아이들에게 미처 못다한 사람이 아쉬울 때마다 이런 생각으로 스스로를 격려하곤 한다.

준비된 여성 기용을 꿈꾸며

이제 문제는 봄개편과 함께 독일로 떠난 정범구씨를 대신할 MC를 찾는 것이다. 그것도 여자 MC를!

능력있는 여자 MC가 거물출연자들과 마주 앉아 세상사에 대해 날카롭게 질문 던지는 모습이란!...생각만 해도 즐겁다.



부군 朴相禧(86년 美大卒)동문, 자녀와 함께.

그러나 현재까지 거론된 후보에는 남자들이 많다. 그래도 나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지난 가을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때문이다.

「저는 서울대 00대학원생인데요, 시사토크프로그램 진행이 꿈이라 도움말을 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그간 「세상읽기」MC에 도전한 유일한 주인공으로 낭랑한 목소리의 젊은 여성이었다. 그래, 어디선가 준비하고 있고, 자질을 갖춘 여성이 있을 텐데 내가 아직 찾지 못했는지 몰라. 지난번 「생방송 여성」에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오숙희씨를 MC로 기용했듯이, 이번에도 그런 모험을 감히 할 수 있기를 꿈꾸며 세상 사람들에게 묻는다. 「어디 정범구만한 여자MC 없나요?」

시사만화가 朴在東동문

동문의
화제의
Talk

한겨레 만평에 이어 「오돌또기」로 승부

“힘 넘치는 한국형 애니메이션 선보일 터”

단 한것의 만화로 답답한 세상과 한심한 정치 판에 질린 사람들에게 삶의 통쾌함과 시원함을 전해주었던 바로 그 사람. 그는 寸鐵殺人の 신랄함으로 독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 때론 일반 국민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짚어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었다. 한겨레신문의 간판이었으며, 시사만평의 새 지평을 열었던 화제의 주인공 朴在東(76년 美大卒)동문.

한겨레신문 창간과 함께 시작된 朴동문의 시사만평은 전교조 출범, 전두환 前대통령 백담사행, 3당 합당, 김일성 주석 사망, 성수대교 붕괴 등 굵직 굵직한 현대사와 그 맥을 함께 하고 있다.

일간신문에서 시사만평의 비중은 어떤 해설이나 논평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朴동문의 만평은 직설적으로 현실을 공격해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맛보게 했다. 또한 풍자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의 표현이 너무도 그럴듯해 독자들은 그것만으로도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그의 만평을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플러스 요인이 되었다.

그렇게 이 시대 최고의 만평가로 사랑 받던 朴동문은 돌연 8년여의 시사만평가로서의 세월을

접고 지난 96년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자기 그림에 숨결을 불어넣고 싶다는 것, 자신이 그린 그림이 살아 움직이게 하고 싶다는 것, 이것은 모든 그림쟁이들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손바닥만한 지면에 흑백으로 매일매일 한 작품씩, 가장 짧은 길이의 이야기를 만드는 시사만화가와 애니메이션 감독은 작업내용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커다란 화면과 광대한 작업스케일, 충분한 작업시간, 화려한 색채에 늘 굶주려왔고 그것을 꿈꿨습니다』

朴동문의 이러한 갈증에 도화선이 된 것은 92년 서울에서 열린 姜堯培(79년 美大卒)동문의 「제주민중항쟁사 - 강요배 역사그림 전시회」였다. 4·3항쟁을 주제로 열린 작품들에는 제주 물결 하나 하나에도 한이 서리고 힘이 넘쳐나 있었다. 집에 와서도 그 인상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朴동문은 탄탄한 토대위에 사실적인 삽화체를 동원, 세계 애니메이션사에 유례가 없던 아주 한국적인 그림들을 선보이겠다는 멋진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나 단지 꿈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정성과 아이디어가 필요



했다. 모교 미대 동기인 姜동문은 배경화가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吳成允(86년 美大卒)동문은 애니메이션 PD로서 까다로운 실무 문제를 거뜬히 해결해 냈다.

이렇게 탄생한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오돌또기」는 현재 콘티와 함께 톱강이·해아·누렁교 등 캐릭터의 완성은 끝마치고 감동과 재미가 있는 시나리오를 물색중이라고 한다.

부산에서 대본소를 하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을 만화와 함께 보낸 朴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으며, 휘문고·중경고 미술교사를 거쳐 한겨레 시사만평가로 활동해왔다. 또한 98년 8월 MBC뉴스 「박재동의 TV만평」을 시작으로 올 4월부터는 KBS 2TV 「시사터치! 코미디 파일」(매주 목요일 밤11시)을 통해 새로운 시사 애니메이션 장르를 개척해 오고 있다. (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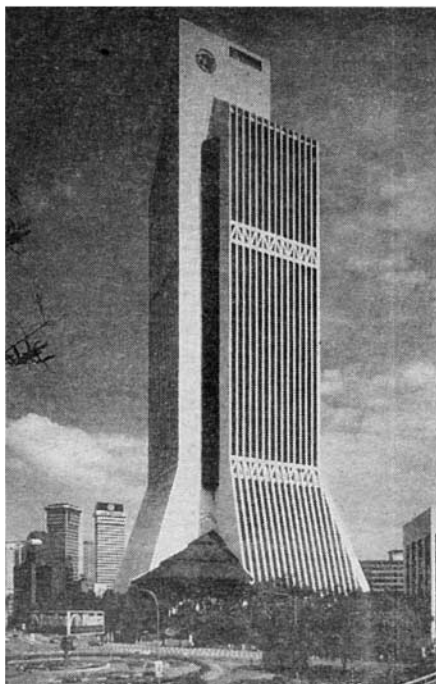
③4 경남기업

새 천년 대비 新건설문화 창달의 주역

12년간 흑자 유지...한국형 실버타운 선보여

경남기업의 반세기는 국내 및 해외건설 시장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으로 이룩된 역사라 할 수 있다.

1951년 창립 이래 꾸준한 기술개발과 축적된 기술력, 풍부한 시공경험 및 전문



자체 시공한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업체와의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한 경남기업은 도로·항만·교량·플랜트·댐·아파트 건설 등에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남기업은 지난 1965년 국내 최초로 해외시장(태국 방콕 중앙타워 수주) 진출의 쾌거를 이룩했으며, 80년 건설 수출 5억불탑, 82년 건설 수출 10억불탑 수상 등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95년 ISO 9001, 97년 ISO 14001을 획득하는 등 인간을 중시하는 휴머니티와 보다 나은 삶을 창조하는 환경 경영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경남기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金學銘(60년 法大卒)사장은 92년 취임한 이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실있는 경영 및 철저한 사업성 분석에 따른 선별수주, 원가의식 강화, 1인 다기능화 등의 경영 방식을 실시,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남기업은 91년 매출 2천5백억원에서 98년엔 5천억원으로 2배 이상의 매출 급신장을 보이는 등 탄탄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초우량 건설업체로 변모했으며 현 IMF 경제위기에 도 자생할 수 있는 강한 체질로



金學銘 사장

달바꿈했다.

한편 경남기업은 신시장 개척의 일환으로 북아프리카의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등에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진출, 공항·댐·발전소·도로·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등 인프라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약 3억불 이상의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는 金사장의 미개척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과감성 있는 결단이 이루어 낸 성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경남기업은 지난 94년부터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작업에 착수, 올해 4월 한국형 실버타운을 분당에 성공리에 분양했으며, 환경라운드 대비 환경친화사업을 특화해 하천 정화 신기술을 특허 취득하는 등 기술우위의 경쟁력을 사전 확보해 한발 앞선 미래경영의 진면목을 보이고 있다.

IMF이후 건설업체의 연쇄부도와 자금경색 등 최악의 건설환경 상황 속에서도 경남기업은 87년 이후 현재까지 흑자기조를 유지, 건설업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현재 국내의 86곳의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남기업은 도로·철도·교량·지하철·댐·플랜트·항만·실버사업·환경사업 등 인프라 구축에 참여, 국가성장의 원동력에 일조하고 있다.

또한 경남기업은 최첨단 장비의 개발과 투입 등 급변하는 건설환경에 대응, 건설사업관리 및 프로젝트 매니저를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현재 경남기업에 몸담고 있는 동문으로는 金사장을 비롯해 李寬載(68년 工大卒)상무, 李載豐(73년 工大卒)·李成實(75년 師大卒)이사 등이 있다. (信)

대학원

李光魯·李相沃동문 공로패 받아



金圭植부회장이 전임 李光魯회장(左)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大學院同窓會(회장 裴載湜)는 지난 4월 22일 모교 교수회관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金圭植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裴회장께서 관련 학회일로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하기 바라며, 2천여명이 넘는 신입 회원들과 함께 더욱 힘

있는 동창회가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同會는 98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와 함께 99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전임 李光魯회장과 李相沃 前대 학원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환경대학원

동문 지방자치단체장 축하모임



環境大學院同窓會(회장 全錫洪)는 지난 4월 7일 롯데호텔에서 모교 俞炳林대학원장, 楊秉彝교수 등 각계 동문과 신입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모교와 동창회

발전에 헌신한 전임 金秉麟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된 高建서울시장, 許完양천구청장, 方濟煥동두천시장, 李翼振인천시 계양구청장, 宋達鏞파주시장 등에게 축하패를 전달했다.

약학대학

일본「藥窓會」정기총회 참석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 11일 동경 후생연금회관에서 열린 藥窓會(경성약학전문학교 출신 일본인 동창

회) 정기총회에 특별 참석했다.李회장을 비롯해 전임 尹相澈·金永銓회장, 李海政·尹斗碩·愼化範·姜炳善·孔南植·趙南春 부회장, 모교 李民和학장 등 50

여명의 동문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이번 행사에는 본국 동문들뿐만 아니라 멀리 대만과 미국에서 활동중인 회원들이 참석,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李회장은 축사에서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함께 있다』며 『오는 10월 모교에서 열리는 체육대회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藥窓會는 이날 회의에서 모리야마 이치로(森山一郎)회장의 임기를 2000년 10월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에게는 本會에서 특별 제작한 넥타이핀과 컵스 버튼 세트를 기념품으로 전달했다.

〈美〉

모임에정

농과대학

5월 15일 정기총회

農科大學同窓會(회장 尹勤煥)는 5월 15일 정오 모교 수원 캠퍼스 사색의 동산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0331-290-2106)

관악무역인회

5월 15일 바둑대회

관악무역인회(冠貿會·회장 金閔鍾)는 5월 15일 오후 2시 서초동 소재 「한일바둑」에서 회원 바둑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471-0763)

공과대학

5월 16일 등산대회

工科大學同窓會(회장 林光洙)는 5월 16일 오전 10시 모교 신공학과 301동 118호에서 「99

년도 정기총회 및 등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877-0568)

명경회

5월 18일 정기모임

경성여자사범학교 출신모임인 明鏡會(회장 南芳元)는 5월 18일 오후 1시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문의-회장 자택: 543-8266)

치과대학

5월 20일 정기총회

齒科大學同窓會(회장 金讚淑)는 5월 20일 오후 7시 모교 치과대학 제2강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742-7082)

행정대학원

5월 24일 정기총회

行政大學院同窓會(회장 姜敏求)는 5월 24일 오전 7시 소공

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문의: 702-7777)

법과대학

5월 28일 정기총회

法科大學同窓會(회장 李奭熙)는 5월 28일 오후 6시 힐튼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문의: 735-3614)

사범대학

5월 28일 정기총회

師範大學同窓會(회장 崔泰祥)는 5월 28일 오후 6시 30분 서울사대부속여중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가질 예정이다.(문의: 720-8116)

건축학과

5월 29일 체육대회

건축학과동창회(회장 洪性穆)는 5월 29일 오후 3시 모교 학군단 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가질 예정이다.(문의: 880-7050)

齒佛會

장학기금 2천5백만원 출연



본회李世震사무총장이李貞燮회장(左)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동문들로 구성된 齒佛會(회장 李貞燮)는 지난 4월 3일 치과대학 1층에서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李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同會를 위해 힘써 주신 동문 여러분과 재학생에게 감사하며 치불회가 더욱 번영·발전할 수 있도록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同會는 그동안의 노고를 감사하는 뜻에서 모교 李種昕·裴珖植·閔炳武교수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한편 이날 同會는 그동안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장학기금 2천5백만원을 본회 李世震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이 기금은 재단법인 관악회의 특별 관리를 통해 치불회기금 장학금 명목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금속공학과

신임 회장에 趙容善동문 선출

금속공학과동창회(회장 羅亨用)는 지난 4월 13일 강남 소재 「만리장성」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제정한 「자랑스런 금속동문상」에 李龜澤(포항제철 사장)동문을 선정, 시상했으며 매년 수석 졸업자에게 수여하는 「동창회장상」은 李榮洙동문이 수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趙容善(그린산업 상임고문)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신임 趙회장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동창회 회장직을 맡게돼 한편으론 기쁘나 중압감 또한 가진다』며 『동문 여러분이 앞으로 적극 도와줄 것을 바라며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OTC 동창회

새 회장에 裴錫彩동문 뽑아



ROTC동창회(회장 孫炳斗)는 지난 4월 14일 하얏트호텔에서 99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孫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벚꽃처럼 한국경제도 다시 피어나길 바라며, 격동기의 지난 세월을 잘 견뎌왔던 것처럼 현 경제난 극복에도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하며 『타대학에 비해 출범이 늦었지만 회원수는 우리가 가장 많으며, 이제는 이를 토대

로 그 빛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역설했다.

이날 총회에서 임원 개선을 통해 신임 회장에 裴錫彩(동양텔레콤 대표)동문(사진)을 선출했으며, 金明炫수석부회장은 그대로 유임됐다.

신임 裴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미력하나마 온 힘과 정열을 바쳐 동창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겠으며, 동문상호간의 결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사무부총장 1인을 두기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朴英珠(63년 商大卒)이건산업 회장, 韓義鉉(64년 商大卒)유양정보통신 사장, 韓明熙(64년 音大卒)국립국악원장, 李大亨(65년 文理大卒)삼재건축 대표, 曹太勳(65년 文理大卒)건국대 교수, 金勇一(65년 師大卒)한국관광공사 본부장, 朴成錫(65년 商大卒)한라그룹 상임고문, 崔鍾仁(65년 商大卒)국민일보 부사장, 全聖雨(71년 師大卒)대한항공 상무, 孫旭鎬(76년 師大卒)한국생명보험 이사 등 동문 80여명이 참석했다.

미학과

백제 고적지 답사 다녀와



미학과동창회(회장 鄭明洙)는 지난 4월 18일 백제 고적지 서산 마애불과 보원사터, 화전리 사면석불 답사여행을 다녀왔다.

俞弘濬(영남대 교수)동문의 고적 안내와 더불어 옛 선인들

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이날 행사에는 姜駿赫, 宋道翼, 崔一玉, 具滋興, 姜澤九, 李駿商동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同會는 7월 7일 오후 7시 프라자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가을에 2차로 신라 고적

지를 답사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지부

골프대회 「農大」우승

인도네시아지부동창회(회장 裴相璟)는 지난 4월 17일 자카르타 근교 「자고라워」골프장에서 99년 첫 골프대회를 가졌다.

동문 40여명이 모여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에서 農大팀이 4백60점으로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4백62점을 기록한 農大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단체전 우승팀에게 동창회장 순회배를 수여했으며, 상금으로 2백만 루피아를 전달했다. 한편 개인전에서는 金鍾泰(72년 商大卒)동문이 우승을 차지했다. 〈信〉

전북 지부

朴性洙총장 환영식

전북지부동창회(회장 柳仁相)는 지난 3월 28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이사회겸 전주대 朴性洙(68년 師大卒)총장 취임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張明洙(56년 工大卒·우석대 총장), 崔熙玉(57년 醫大卒·최신경외과 원장)등문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원자핵공학과

金三坤회장 재추대

원자핵공학과동창회(회장 金三坤)는 지난 4월 8일 역삼동 소재 「보름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98년도 동창회 활동보고와 결산보고가 있었으며, 회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원개선을 통해 金三坤회장을 재추대했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상정된 모교 원자핵공학과 발전계획(안)에 관해서는 전체 회원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발전계획(안) 및 설문지를 각 회원에게 발송, 이를 토대로 결정키로 했다.

치대 22회

북한산 친목등반

치대22동기회(회장 文福剛)는 지난 4월 11일 북한산 등반대회를 열었다.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이날 산행은 이북5도청 정문을 출발하여 청운양로원, 금선사를 거쳐 진관사로 연결되는 코스로 이어졌으며, 동문들은 그동안의 우정을 재차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信)

모교소식

의대 「醫學校」 100주년 기념
「池錫永길」명명·표지석 제막

의과대학(학장 李正相)은 지난 3월 24일 연건캠퍼스 의대강당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의학교육 기관인 「醫學校」 설립 1백주년 기념식 및 학술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李基俊총장, 宋丙洛부총장, 朴容眩병원장, 李吉女의대동창회장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교 초대 교장을 지낸 池錫永선생의 뜻을 기리며 병원 후문에서 본관까지의 길을 「지석영길」로 명명하고 기념표지석을 제막했다.

한편 의대는 연건캠퍼스 본관 3층에 의대 역사자료실을 개관했다.

행정·보건대학원

창설 40주년 국제세미나 가져

행정대학원(원장 金信福)은 지난 4월 24일 창설 40주년을 맞아 국제세미나, 홈커밍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는 모교 鄭正佑교수를 비롯해 조지 프레드릭슨(美 캔사스주립대) 교수, 아키라 모리타(日 동경대)교수, 오 강(中 국가행정원)

교수 등이 참석, 「행정의 변화와 행정학 교육」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보건대학원(원장 鄭文鎬)은 5월 2일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의대 3층 강당에서 21세기 보건대학원의 역할에 대한 국제세미나와 홈커밍 행사를 개

최했다. 보대원은 앞으로 홈페이지 보완제작, CD-ROM제작, 학생체육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물관

수요 교양강좌

박물관(관장 崔夢龍)은 6월 1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재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청각 강의를 실시한다. (문의 880-5333)

▲강의 제목 및 강사: △5월 12일: 한국과 중국의 불교 조각 (덕성여대 최성은 교수) △5월 19일: 경주 안압지(국립경주박물관 고경희) △6월 2일: 조선 전기 불화의 이해(동아대 박은경 교수) △6월 9일: 우리나라 사찰건축(경주대 이강근 교수) △6월 16일: 한국과 중국의 인물화(충북대 박은화 교수)

천문학과

천문대 공개행사

자연과학대학 천문학과(학과장 李相珏)는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 천문대 공개행사를 갖는

다. 5월 29일·6월 19일·9월 18일·10월 23일·11월 20일은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7월 24일·8월 21일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신천문대 45동에서 태양관측, 시설 관람, 기념촬영, 야간 공개 관측 등을 실시한다. (문의 880-6622)

규장각

금요 학술강좌

규장각(관장 李相澤)은 5월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규장각 3층 강당에서 교직원, 재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규장각 자료로 보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선보인다. (문의 880-5468) 〈燮〉

선배님 아세요?

—大學新聞「대학살롱」중에서

베리 임포터트 렉처

◇개강 첫날 쌀롱자, 올해 입학한 후배에게 첫 강의를 들은 소감을 묻자, 교수님께서 무척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는 데...

『아마 여러분이 내 클래스에서 제일 임포터트하게 여겨야 할 것은, 이제 적어도 이 나라의 인텔렉추얼로서 사회를 퍼시브하는 안목을 키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사회의 리더로서 그 몫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주위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안들, 즉 소사이어털 이슈들을, 엘리트의 노블레스 오블리지적 리스폰서빌리티를 가지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보면 내가 지금 하는 말에 어그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배, 강의가 투다피컬트해 언더스탠드하지 못했다더라.

선배님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1. 모교 학생식당 식사질 향상을 위한 출연 안내

하루 평균 8천여명의 재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식당 식사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연간 4억1천만원이 필요합니다.

하루 세끼를 학생식당을 이용하는 가난한 자취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문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후원금을 출연해주신 분에게는 시식용 식권 10매를 우송해드리며 출연자의 이름을 식당벽에 각인해 놓을 예정입니다.

2. 학생 기숙사 집기 교체를 위한 출연 안내

개사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집기를 교체했으나 여전히 노후된 집기가 많습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을 덜어주어 기숙사의 이용효과를 높이하고자 합니다.

책상, 의자, 옷장, 목재침대, 매트리스 등을 교체하는데 16억원이 소요됩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후원금을 출연해주시면 출연하신 금액에 해당하는 집기에 출연자의 이름을 각인하여 감사의 뜻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3. 출연 방법

농협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079-17-000136, 예금주: 서울대발전기금)으로 무통장 입금하신 후 후원대상과 인적 사항을 통보해 주시면 됩니다.

4. 안내 및 연락처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 (전화: 871-8146, 880-5026 팩스: 872-4149)

동문소식

新刊

■ 초등교육연구

—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소



전주교대 金錡坤(56년 師大卒) 교육대학원장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이 간행됐다. 金동문

은 이 책에서 요즈음 유행하는 왕따, 즉 「집단 괴롭힘」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연구논문을 초등학교 중심으로 소개해 눈길을 끈다.

■ 따뜻한 날의 오후

—徐翼源 著



93년 수원지검장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암으로 투병생활을 했던 徐翼源(62년

法大卒) 동문이 30년 검사생활을 정리하는 회고록을 펴내 감동을 준다. 스포츠해설가 徐翼源(62년 文理大卒) 동문의 친동생이자 대구지검 鄭容秀(89년 法大卒) 검사의 장인인 徐동문은 지난 4월 20일 타계했다. (생각의 나무刊·값7,000원)

■ 신문발행인의

권력과 리더십

—安炳燦 著



한국일보 편집부국장 겸 주불특파원, 논설위원 등을 역임한 安炳燦(75년 新大院卒·경원대 중앙도서관장·본보 논설위원) 동문이 한국외국어대 박사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百想 張基榮 한국일보 창간발행인의 신문경영을 학문적으로 분석한 安동문의 작업은 언론사적 의미가 큰 첫 시도이다. (나남출판刊·값18,000원)

■ 건반음악의 해석

—玄在喜 譯



세종대 음악과 교수인 玄在喜(76년 音大卒) 동문이 하워드 퍼거슨박사가 저술한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연주된 건반음악

에 대한 해석과 연주법」을 알기 쉽게 번역해 놓았다. (음악춘추사刊·값 18,000원)

■ 기초 프랑스어회화

—金眞秀 著



여개의 상황을 정리, 살아있는 프랑스어 회화책을 펴냈다. (삼지사刊·값7,000원)

■ 건선의 한방치료

—李仙童 著



상지대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李仙童(88년 保大院卒·영등포한의원) 동문이 난치성 피부병인 건선의 원인과 유형, 예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정리했다. (푸른솔刊·값15,000원)

公演

■ 全瓊玉 「첫마음」콘서트

—5월 28일 메트로홀

全瓊玉(86년 音大卒) 동문이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조화를 이룬 세 번째 콘서트를 상계동 미도파백화점 메트로홀에서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 작곡가 李建鏞(74년 音大卒) 동문의 작품을 비롯해 10여곡을 독창한다. (공연문의: 세연아트큐 2268-2758)

■ 全恩美 피아노독주회

—5월 28일 예술의 전당

현재 울산대·서라벌대에 출강하고 있는 全恩美(84년 音大卒) 동문이 피아노독주회를 갖는다. 쇼팽의 「소나타 3번 b단조」 등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피아노포르테 497-1973)

■ 廉寶英 피아노독주회

—5월 31일 예술의 전당

피아니스트 廉寶英(76년 音大卒·서울교대 교수) 동문이 독주회를 갖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모차르트의 「판타지 d단조」 등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지음기획 2265-9235)

■ 김수연 피아노독주회

—5월 31일 영산아트홀

미시간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수연(90년 音大卒) 동문이 귀국독주회를 열어 스카를라티, 베토벤, 메시앙, 리스트 등의 작품을 연주한다. (공연문의: 음연 516-5141) (變)

동문의 소리

「春來不似春」의 辯

어릴 적에 우린 들었다. 봄은 저 멀리 아지랑이 고개를 넘어 할미꽃 할머니와 함께 처녀의 가슴으로부터 밝고 화사하게 그 자태를 뽐낸다고 했다. 그래서 모두 봄을 애타게 기다리고 가슴 설레고 또한 그리워한다.

별써 저 멀리 산비탈 양지쪽에 산당화가 움이 트고 도시

초등학교 앞에는 햇병아리가 선을 보이니 봄은 분명 온 것 같은데 왜 우리들 가슴엔 다가오지 않고 답답하고 무디어만 지는가... 누가 우리를 이렇게 봄감정으로 몰아 넣었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믿지 못하게 만들었는가.

花無十日紅인데 여의도의 봄, 궁정동의 봄, 평화시장의



봄은 언제쯤 올리는지?

옛피던 가지엔 소담스런 꽃과 잎새가 다시 돌아나고 이 땅에 不信의 검은 구름을 거두어 화창하고 희망적인 봄날을 맞이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하자. 權奇成(79년 行大院卒) 한국레미콘산업연합회 부회장

IMF의 끝을 알려드립니다

완전한 봄기운 속에서 우리의 마음마저 공공 얼어붙게 했던 IMF한파는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IMF시대가 나는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지 모른다. 사실 그동안 달콤한 고도성장의 열매를 즐기면서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오만하고 거만해져 왔는데, IMF를 통해 그 못된 버릇이 고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친절해야 했던 택시기사나 가게 주인들이 이제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고, 서민들의 서러운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를 일삼던 부동산업자와 돈 많은 사람들이 망해 나가고, 영원한 제국으로 남을 것 같았던 재벌이 부도가 나고, 그동안 서민의 위에서

군림하던 은행원과 공무원이 퇴출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대단한 계급이론으로 무장하여 중소기업 사장을 마치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귀처럼 대하던 근로자들도 이제 공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고, 편안한 일자리만 찾던 구직자들은 이제 3D직종을 찾아 헤매고 있다.

지금 모두들 힘들다고 야단이며 언제쯤 이 지긋지긋한 IMF체제가 끝날 것인지 궁금해한다.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안다. 오만을 버리고 자기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주위를 둘러보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짐을 함께 들어주려고 할 때 이 냉혹한 IMF체제가 막을 내린다는 것



을. 姜佑源(88년 環大院卒) 경북 김천시청 정책연구부실장

인터넷 자유게시판

서울대 충암고교

홈페이지 개설

이승현(96년 農生大卒)

lee 1037@plaza1.snu.ac.kr

서울대학교 충암고등학교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 서울대 동문과 특히, 충암고 동문의 많은 방문바랍니다. (<http://plaza1.snu.ac.kr/~lee1037>)

건축학과 네티즌

동문모임 홈페이지

SNUarchi

snuarchi@hanmail.net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SNUarchiNET 홈페이지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 82학번에서 95학번까지 동기모임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이 링크되어 있으며 전공 분야에 대한 정보교류와 토론 등을 위해 분야별 게시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동문들간의 실시간 대화를 위해 대화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SNUarchiNET 홈페이지 주소는 <http://w3.to/snuarchi>입니다. 위의 주소로 연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http://members.tripod.com/~snuarchi86/snuarchi/>로 접속해도 됩니다. 게시판이 필요한 학번들은 메일주세요.

모교 홍보실 제대로 설치되길

서울시내 4년제 대학 중에 유일하게 홍보실이나 홍보과가 없는 대학이 바로 서울대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찌보면 가장 홍보거리가 많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담당 부서가 없다는 사실은 출입기자 입장에서 볼 때 기가 막힌 아이러니다.

사실 그동안 서울대가 자체 홍보의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른 학교에선 1단짜리 기사도 안되는 것을 서울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대문짝 만하게 언론에서 다뤄줬기 때문이다. 또 선비기질을 장려하는 학풍상 매스컴을 타는 것을 「소인배의 행동」쯤으로 여기는 교내 분위기도 한몫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시장개방시대를 맞아 국내 대학들도 언젠가는 세계적 경쟁체제에 편입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단적으로 우리 나라에 하버드나 옥스퍼드대 분교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럴 경우에도 과연 서울대가 지금과 같이 홍보에



초연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무척 궁금하다.

또한 앞으로 서울대가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울대특별법 제정추진 등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야 할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홍보에 무관심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다행히 晩時之歎의 감은 있으나 최근 서울대도 홍보실 설치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물론 「국립」서울대의 일인지라 어찌 될지는 두고봐야 알겠으나 이와 준비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金正河(92년 社會大卒)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

회비납부 솔선하여 참여하는 동문되자

〈理事: 99년 1월 28일~3월 31일·一般: 99년 1월 28일~3월 28일〉

회 장 단

▲부회장 朴容晟 = 1백만원
▲부회장 李祥義 = 50만원

관 악 회

▲이 사 金道昶 = 30만원
▲이 사 白文基 = 30만원
▲이 사 金一燮 = 30만원

상 임 이 사

▲尹勤煥 농대동창회장 = 20만원
▲全錫洪 환대원동창회장 = 20만원

이 사

◇人文大學

▲서원석

◇社會科學大學

▲조현태 ▲황주철

◇家政大學

▲유영주 ▲정하진

◇看護大學

▲박문희 ▲송미선 ▲이금라

◇經營大學

▲박명호 ▲박재태 ▲하부열

◇工科大學

▲강대욱 ▲고재웅 ▲공병태 ▲권수웅
▲권형석 ▲김 철 ▲김건호 ▲김광교
▲김광욱 ▲김덕수 ▲김경근 ▲김병진
▲김석수 ▲김영웅 ▲김영희 ▲김왕신
▲김용석 ▲김원배 ▲김윤규 ▲김재희
▲김정근 ▲김정만 ▲김준근 ▲김종진
▲김주호 ▲김주환 ▲김찬우 ▲김태섭
▲김태준 ▲김형진 ▲김희재 ▲문광순
▲문희성 ▲민경식 ▲박금철 ▲박동서
▲박민석 ▲박성훈 ▲박승빈 ▲박인규
▲박주현 ▲박준창 ▲박창선 ▲박창순
▲백해동 ▲백형배 ▲변재국 ▲서립규
▲서민석 ▲서석현 ▲손 욱 ▲손진영
▲송기덕 ▲송영영 ▲신동수 ▲신훈철
▲심옥진 ▲심이택 ▲안재홍 ▲양정웅
▲양준호 ▲염서연 ▲오창석 ▲오학석
▲원호영 ▲유성삼 ▲유영주 ▲유인영
▲윤재석 ▲윤팔문 ▲이 관 ▲이계수
▲이계원 ▲이기화 ▲이동현 ▲이동호
▲이만철 ▲이봉규 ▲이상룡 ▲이상철
▲이석규 ▲이선우 ▲이영호 ▲이영희
▲이정목 ▲이정민 ▲이종각 ▲이종현
▲이종호 ▲이종훈 ▲이주범 ▲이진주
▲이충규 ▲이충웅 ▲임승근 ▲장동욱
▲장명수 ▲장병주 ▲전광철 ▲전기명
▲전상백 ▲전영환 ▲정보현 ▲정상근
▲정일모 ▲정조섭 ▲정철수 ▲제해현
▲조규대 ▲조병우 ▲조창걸 ▲조창희

▲조흥균 ▲주기만 ▲주재욱 ▲주종원
▲지철근 ▲진국봉 ▲진대제 ▲채방은
▲최 탄 ▲최승주 ▲최인재 ▲최재철
▲최종명 ▲최태영 ▲추지식 ▲하영무
▲한수양 ▲한용호 ▲허영섭 ▲홍영희
▲황상일

◇農科大學

▲고홍철 ▲곽영철 ▲권오진 ▲김남웅
▲김병환 ▲김삼국 ▲김영진 ▲김진희
▲김창호 ▲김철수 ▲박순직 ▲박양자
▲박진환 ▲서기호 ▲송재관 ▲심완조
▲오봉국 ▲유동준 ▲윤오섭 ▲윤희진
▲이규승 ▲이내수 ▲이상규 ▲이상영
▲이치섭 ▲임수호 ▲장정식 ▲정무남
▲정일영 ▲정창현 ▲함종환 ▲홍 진

◇文理科大學

▲고 건 ▲곽화영 ▲권영진 ▲김경동
▲김경환 ▲김동진 ▲김두희 ▲김병일
▲김성집 ▲김영규 ▲김영국 ▲김은태
▲김의경 ▲김인규 ▲김정태 ▲김형호
▲남광성 ▲박만수 ▲박병진 ▲박상대
▲박영안 ▲박운서 ▲박준규 ▲변 형
▲서명원 ▲손재석 ▲신동호 ▲신용하
▲신학용 ▲안택수 ▲오병남 ▲육세홍
▲윤명중 ▲윤재현 ▲윤현주 ▲이각범
▲이경재 ▲이규원 ▲이동복 ▲이두중
▲이병호 ▲이상렬 ▲이상현 ▲이성해
▲이여영 ▲이영일 ▲이영태 ▲이우화
▲이재명 ▲이정남 ▲이정석 ▲이한빈
▲임의신 ▲임현진 ▲장성주 ▲장정환
▲장하규 ▲장상호 ▲정병섭 ▲정양모
▲정종욱 ▲정종환 ▲정춘택 ▲조 은
▲조영길 ▲조용직 ▲최경락 ▲최규영
▲하영준 ▲한영우 ▲한우석 ▲허 선
▲현영원 ▲홍남표 ▲홍중희

◇美術大學

▲민철홍 ▲박노수 ▲박한철 ▲이용환
▲이종철 ▲조승환 ▲조영철 ▲최만린
▲최태태

◇法科大學

▲강동훈 ▲강민수 ▲강병호 ▲강신욱
▲강신원 ▲강용규 ▲강재섭 ▲공노명
▲권문규 ▲권영훈 ▲권오윤 ▲권재태
▲금병훈 ▲금진호 ▲김갑현 ▲김경태
▲김경환 ▲김광일 ▲김권택 ▲김기현
▲김길준 ▲김길중 ▲김덕영 ▲김동원
▲김동호 ▲김동훈 ▲김병우 ▲김상규
▲김상희 ▲김석기 ▲김석영 ▲김성곤
▲김성길 ▲김성수 ▲김세권 ▲김승규
▲김신택 ▲김영대 ▲김영무 ▲김영수
▲김영재 ▲김원섭 ▲김원태 ▲김우후
▲김의재 ▲김익하 ▲김인중 ▲김종국
▲김종식 ▲김준섭 ▲김중웅 ▲김진만
▲김창갑 ▲김창균 ▲김창기 ▲김태경
▲김태현 ▲김하남 ▲김현무 ▲김현태
▲김홍규 ▲김홍현 ▲김효영 ▲김희근
▲남승우 ▲노명준 ▲노승환 ▲명호근
▲문복주 ▲문인규 ▲문정주 ▲문홍주
▲박만호 ▲박상기 ▲박상현 ▲박선우
▲박순용 ▲박재철 ▲박종덕 ▲박종웅
▲박주선 ▲박준서 ▲박천식 ▲박철근
▲박홍근 ▲방 현 ▲배 도 ▲배명인

▲배무남 ▲배상오 ▲배석필 ▲배억만
▲변정일 ▲서경석 ▲서규택 ▲서성영
▲서정진 ▲서정우 ▲서형석 ▲선우종
▲설동훈 ▲손근석 ▲손진곤 ▲송병대
▲송영식 ▲송용식 ▲송인준 ▲송재현
▲신억현 ▲신영무 ▲신원환 ▲신원규
▲신원식 ▲신창동 ▲신창호 ▲신학근
▲신현덕 ▲심재돈 ▲안강민 ▲안동일
▲안번일 ▲안용득 ▲안우민 ▲안수일
▲양영준 ▲오성환 ▲오종근 ▲오종남
▲우창복 ▲유 훈 ▲유근원 ▲유길선
▲유시권 ▲유인의 ▲유재인 ▲유종중
▲유희열 ▲윤동운 ▲윤원식 ▲윤일영
▲윤영로 ▲이건방 ▲이규호 ▲이대순
▲이동희 ▲이무룡 ▲이문재 ▲이삼삼
▲이선우 ▲이세복 ▲이세직 ▲이세창
▲이수성 ▲이순종 ▲이영옥 ▲이우영
▲이우영 ▲이원철 ▲이재기 ▲이재식
▲이재웅 ▲이정락 ▲이종기 ▲이종석
▲이주수 ▲이창원 ▲이천수 ▲이태창
▲이태희 ▲이한동 ▲이해원 ▲이희창
▲임상현 ▲임인택 ▲임준선 ▲임태우
▲임희운 ▲장병규 ▲장재식 ▲장준호
▲장창호 ▲장상석 ▲전우철 ▲전우철
▲정구영 ▲정동욱 ▲정영조 ▲정우모
▲정은구 ▲정해창 ▲재길영 ▲조대현
▲조석제 ▲조순형 ▲조우규 ▲조지연
▲조형일 ▲지근수 ▲진 영 ▲최경원
▲최광물 ▲최기정 ▲최동규 ▲최상원
▲최상태 ▲최연희 ▲최원현 ▲최주근
▲추영일 ▲한광세 ▲한광수 ▲한동우
▲한명수 ▲한정길 ▲한영철 ▲현병무
▲호문혁 ▲홍이석 ▲홍인기 ▲홍진태
▲황규연 ▲황규정 ▲황수길 ▲황찬홍

◇師範大學

▲강규석 ▲공구영 ▲구창모 ▲권창자
▲길우석 ▲김기곤 ▲김대식 ▲김병준
▲김상열 ▲김상준 ▲김성대 ▲김연식
▲김지자 ▲노갑기 ▲노두호 ▲문상호
▲박영석 ▲박익두 ▲박종국 ▲박종세
▲박종식 ▲박한식 ▲박희숙 ▲배구섭
▲승만호 ▲오경환 ▲원호택 ▲윤봉원
▲윤용혁 ▲이석우 ▲이성목 ▲이원순
▲이원우 ▲이우영 ▲이이현 ▲임한순
▲장충식 ▲정영우 ▲조 훈 ▲최병주
▲한진희 ▲홍승직

◇商科大學

▲강석권 ▲강수현 ▲강진우 ▲강태순
▲구석모 ▲구영치 ▲구정희 ▲김광선
▲김광진 ▲김규석 ▲김근배 ▲김남현
▲김대중 ▲김방연 ▲김배철 ▲김병기
▲김성근 ▲김선영 ▲김영규 ▲김영대
▲김영수 ▲김완기 ▲김우년 ▲김원길
▲김운기 ▲김운재 ▲김정순 ▲김정태
▲김종국 ▲김종국 ▲김종덕 ▲김종욱
▲김종원 ▲김진범 ▲김충환 ▲김태우
▲김현덕 ▲김형민 ▲김형수 ▲김홍기
▲남운우 ▲맹진성 ▲명동근 ▲문성철
▲문인석 ▲민병태 ▲민상기 ▲민창기
▲박근준 ▲박상은 ▲박영복 ▲박영우
▲박영조 ▲박영주 ▲박우근 ▲박원배
▲박정식 ▲박준대 ▲박정환 ▲박태영
▲배창모 ▲배구현 ▲서덕규 ▲서성록
▲서승원 ▲서정원 ▲서태식 ▲송기혁

▲손병두 ▲송달호 ▲송병락 ▲송인상
▲송일범 ▲신동재 ▲신동혁 ▲심 훈
▲심원택 ▲심정규 ▲안경태 ▲안재원
▲안재현 ▲양승현 ▲오한규 ▲우본형
▲우종일 ▲우찬목 ▲원우식 ▲원호출
▲유병무 ▲유정희 ▲유진무 ▲유창식
▲윤승두 ▲윤원배 ▲이 선 ▲이갑현
▲이강수 ▲이경재 ▲이기용 ▲이기호
▲이덕중 ▲이동대 ▲이민수 ▲이병규
▲이성태 ▲이수빈 ▲이수인 ▲이순환
▲이영세 ▲이영택 ▲이영성 ▲이우영
▲이용취 ▲이진배 ▲이종덕 ▲이종연
▲이주찬 ▲이준용 ▲이철주 ▲이충우
▲임병태 ▲임재수 ▲임조홍 ▲전영원
▲전창수 ▲전철환 ▲정덕용 ▲정병호
▲조 순 ▲조문규 ▲조병해 ▲주진표
▲진 념 ▲최광현 ▲최남해 ▲최선목
▲최수병 ▲최종원 ▲최해은 ▲추한식
▲추호석 ▲한기철 ▲한석운 ▲한진수
▲허병하 ▲홍순기 ▲홍영기 ▲홍재형
▲황동규

◇獸醫科大學

▲계봉구 ▲김남홍 ▲김병래 ▲김상돈
▲김오삼 ▲김인호 ▲김창운 ▲박기복
▲서동일 ▲신현일 ▲이도필 ▲이창규
▲장병표 ▲장인호

◇藥學大學

▲강석진 ▲권 박 ▲권창호 ▲김광순
▲김규호 ▲김상열 ▲김성준 ▲김성근
▲김영진 ▲김용길 ▲김종숙 ▲김종수
▲김진우 ▲문승민 ▲박정규 ▲서석수
▲서정성 ▲양준호 ▲윤상철 ▲이갑철
▲이강추 ▲이계준 ▲이기연 ▲이동원
▲이민화 ▲장일무 ▲조양태 ▲지현석
▲최덕일

◇音樂大學

▲김명주 ▲김홍련 ▲안형일 ▲유영명
▲이성현 ▲이재숙

◇醫科大學

▲강내열 ▲강대성 ▲강세철 ▲고건성
▲고계환 ▲고원순 ▲김경식 ▲김근식
▲김광수 ▲김근우 ▲김기선 ▲김기영
▲김병천 ▲김상우 ▲김성영 ▲김세경
▲김승욱 ▲김연기 ▲김영민 ▲김용락
▲김용진 ▲김원동 ▲김종희 ▲김주현
▲김진복 ▲김정수 ▲맹국영 ▲문국진
▲문성무 ▲문한규 ▲문효중 ▲민양기
▲박남진 ▲박상철 ▲박상일 ▲박영원
▲박영태 ▲박영하 ▲박영희 ▲박영현
▲박찬웅 ▲박희일 ▲배대경 ▲백남진
▲서경필 ▲서재학 ▲선우철 ▲성기호
▲손근찬 ▲손준호 ▲신면우 ▲신성우
▲신영배 ▲신창재 ▲심재식 ▲안영국
▲안재환 ▲양영식 ▲염광원 ▲오경근
▲오병희 ▲오승환 ▲오창철 ▲우동영
▲유병훈 ▲유수중 ▲은희철 ▲이강훈
▲이광호 ▲이규형 ▲이강상 ▲이명철
▲이성우 ▲이순용 ▲이영철 ▲이용국
▲이정근 ▲이종민 ▲이종진 ▲이종태
▲이태호 ▲이필우 ▲임현중 ▲장돈식
▲장봉린 ▲장성근 ▲장운석 ▲전동원
▲전하영 ▲정경태 ▲조강희 ▲최 용

▲최경진 ▲최관홍 ▲최병희 ▲최용목
▲최정연 ▲최창식 ▲최창국 ▲한기호
▲한동수 ▲한민정 ▲한정철 ▲함의근
▲허봉렬 ▲홍경표 ▲홍성태 ▲홍창의
▲황정운

◇齒科大學

▲강구환 ▲김경애 ▲김길태 ▲김병찬
▲김선일 ▲김성수 ▲김성오 ▲김세동
▲김소현 ▲김인수 ▲김정기 ▲김종우
▲김종철 ▲김종철 ▲김주환 ▲김창원
▲김평일 ▲김홍식 ▲남동석 ▲명동성
▲민병덕 ▲박영숙 ▲박용준 ▲박용호
▲박인철 ▲박주호 ▲백동준 ▲백성기
▲변영남 ▲서영수 ▲서현중 ▲성백규
▲성영환 ▲손 근 ▲송준근 ▲신현철
▲양 웅 ▲염성환 ▲유서운 ▲유형식
▲이경모 ▲이규철 ▲이병태 ▲이병환
▲이순표 ▲이승부 ▲이시우 ▲이영희
▲이정호 ▲이지화 ▲임동욱 ▲임성균
▲임순모 ▲전태수 ▲정건용 ▲정기근
▲정종선 ▲조영수 ▲조우동 ▲조종학
▲주관철 ▲최옥환 ▲한국영 ▲한성훈
▲허 택 ▲황규선

◇大學院

▲안무학

◇經營大學院

▲김운택 ▲김임식 ▲김홍식 ▲김환중
▲원영중 ▲이상락 ▲이철우 ▲장문인
▲조희화 ▲최성중

◇教育大學院

▲김병두

◇保健大學院

▲김송진 ▲김수철 ▲김초강 ▲박순영
▲박창진 ▲손경애 ▲이규현 ▲이명화

◇司法大學院

▲김창식 ▲오복동 ▲이건개 ▲이원성
▲지현배

◇新聞大學院

▲곽찬호 ▲김태문 ▲이근수 ▲이준우

◇行政大學院

▲김두환 ▲김세욱 ▲배문환 ▲손선규
▲신순우 ▲신윤식 ▲심기철 ▲양석호
▲윤일균 ▲이준우 ▲이치열 ▲정경모
▲정상현 ▲조상호 ▲조성근 ▲최계순

◇環境大學院

▲강길부 ▲박춘배

◇최고산업전략과정

▲최재영

일 반

◇人文大學

▲강명희 ▲강석철 ▲곽은영 ▲김기범
▲김석희 ▲김종원 ▲류 진 ▲문윤순
▲박성관 ▲박순문 ▲박태영 ▲서대인

▲송기호⑩ ▲송미영⑦ ▲신언호⑩ ▲육영채⑩
▲유종복⑩ ▲이봉연⑦ ▲이정용⑩ ▲이중선⑦
▲이준상⑩ ▲임수근⑦ ▲임흥재⑩ ▲장낙도⑩
▲제후석⑩ ▲채 원⑦ ▲최민경⑩ ▲최성락⑩
▲한대명⑩ ▲한혜원⑦ ▲홍문수⑩ ▲황은경⑩

◇社會科學大學

▲강성천⑩ ▲강승모⑩ ▲고광철⑩ ▲권상문⑩
▲김갑철⑩ ▲김경용⑩ ▲김기수⑩ ▲김기영⑩
▲김동식⑩ ▲김서유⑩ ▲김선영⑩ ▲김성주⑩
▲김영광⑩ ▲김영우⑩ ▲김인수⑩ ▲김종민⑩
▲김주영⑩ ▲김주영⑦ ▲김태복⑩ ▲김현종⑩
▲김형렬⑩ ▲김형일⑦ ▲김희철⑩ ▲남인용⑩
▲민선식⑩ ▲박 진⑦ ▲박동영⑩ ▲박재⑩
▲박종세⑩ ▲박종호⑩ ▲박진화⑩ ▲배선영⑩
▲백승훈⑩ ▲백정기⑩ ▲서병일⑩ ▲서인석⑩
▲서창록⑩ ▲소병수⑩ ▲신형식⑩ ▲안선아⑩
▲염병배⑦ ▲오규백⑩ ▲오문석⑩ ▲유두선⑦
▲유채영⑦ ▲윤현종⑩ ▲이 욱⑩ ▲이광훈⑩
▲이근형⑩ ▲이상용⑦ ▲이승근⑩ ▲이승훈⑩
▲이영봉⑩ ▲이영화⑩ ▲이정만⑩ ▲이정식⑩
▲이정태⑩ ▲이창우⑩ ▲이희태⑩ ▲임선호⑩
▲장호근⑩ ▲전병각⑩ ▲전형남⑩ ▲정성인⑩
▲정성호⑩ ▲정영복⑩ ▲정영목⑩ ▲정재호⑦
▲조기승⑦ ▲조도준⑩ ▲조병하⑦ ▲조영일⑩
▲조한욱⑩ ▲조현욱⑩ ▲최남호⑩ ▲최신립⑩
▲최원식⑩ ▲하낙현⑩ ▲하봉우⑩ ▲한동원⑦
▲현무성⑩ ▲홍석준⑦ ▲홍이석⑩

◇自然科學大學

▲강복균⑩ ▲고형석⑩ ▲권재명⑩ ▲권정숙⑩
▲공종해⑩ ▲김건우⑩ ▲김대선⑦ ▲김병문⑩
▲김성근⑩ ▲김승주⑩ ▲김원규⑩ ▲김은식⑦
▲김진오⑦ ▲김철영⑩ ▲노정해⑦ ▲박 혁⑩
▲박광식⑦ ▲박기석⑩ ▲송준화⑩ ▲신기순⑩
▲양명룡⑦ ▲엄성화⑩ ▲오달균⑩ ▲유석동⑩
▲이묘재⑦ ▲이무현⑩ ▲이병홍⑦ ▲이상규⑩
▲이승환⑩ ▲이원애⑦ ▲이재범⑦ ▲이중민⑩
▲이지희⑩ ▲이찬서⑦ ▲이창복⑦ ▲이한형⑩
▲임태순⑩ ▲정동근⑩ ▲정선희⑩ ▲정원교⑦
▲조동원⑦ ▲조원화⑩ ▲최달영⑩ ▲최종수⑩
▲최호진⑩ ▲황찬용⑩

◇家政大學

▲고희정⑩ ▲곽선진⑩ ▲권훈정⑩ ▲김경애⑦
▲김성진⑦ ▲김성희⑦ ▲김인원⑩ ▲김현수⑩
▲김혜경⑩ ▲박복순⑦ ▲백선자⑩ ▲성홍경⑩
▲송경파⑦ ▲오경숙⑩ ▲우종란⑦ ▲유재은⑩
▲유효선⑦ ▲윤기숙⑦ ▲은경자⑩ ▲이병희⑩
▲이정덕⑩ ▲이정선⑦ ▲이희우⑩ ▲이혜상⑦
▲이희령⑦ ▲이희주⑦ ▲전옥경⑩ ▲정해민⑦
▲조유례⑦ ▲조은경⑩ ▲최경희⑩ ▲최영희⑩
▲최민자⑩ ▲최선아⑦ ▲추희경⑦ ▲표은경⑦
▲한영옥⑩ ▲현혜정⑩

◇看護大學

▲김영숙⑩ ▲김영아⑩ ▲김혜성⑦ ▲노혜숙⑦
▲박관순⑩ ▲백형자⑩ ▲이홍자⑩ ▲전기주⑦
▲정명옥⑦ ▲최병남⑦ ▲한영자⑦ ▲홍희정⑩

◇經營大學

▲강무석⑩ ▲고광중⑦ ▲고대원⑩ ▲고용조⑩
▲곽기영⑩ ▲권영수⑦ ▲권혁무⑦ ▲김 일⑩
▲김경록⑩ ▲김경식⑩ ▲김선진⑩ ▲김영봉⑩
▲김옥배⑩ ▲김정환⑦ ▲김형희⑩ ▲남연우⑦
▲문정환⑩ ▲민상기⑩ ▲박경호⑦ ▲박병규⑩
▲박세환⑩ ▲박정석⑩ ▲박창섭⑩ ▲배택영⑦
▲서준호⑩ ▲성태홍⑦ ▲신동민⑩ ▲신재용⑩
▲신철호⑩ ▲오창호⑦ ▲유 인⑩ ▲유병오⑩
▲윤병은⑦ ▲유영영⑩ ▲윤정환⑩ ▲은범수⑩
▲이석영⑩ ▲이승호⑦ ▲전유현⑩ ▲정인철⑩
▲정태현⑦ ▲정훈교⑦ ▲제준환⑦ ▲조도근⑦
▲조민건⑦ ▲조승희⑩ ▲주우진⑩ ▲진승환⑩
▲최성원⑦ ▲최원석⑦ ▲최창목⑩ ▲최호순⑩
▲한갑희⑩ ▲함형태⑩ ▲홍유진⑩ ▲홍정균⑩

▲황선건⑩ ▲황진숙⑩

◇工科大學

▲강국준⑩ ▲강근배⑦ ▲강남원⑩ ▲강민구⑦
▲강상규⑩ ▲강석태⑩ ▲강송구⑦ ▲강승주⑦
▲강승호⑩ ▲강영진⑦ ▲강윤철⑦ ▲강인원⑦
▲강일우⑦ ▲강창수⑩ ▲강태영⑦ ▲강태운⑦
▲강태호⑦ ▲강학순⑩ ▲강행언⑩ ▲강현석⑩
▲강홍열⑩ ▲고광빈⑩ ▲고문찬⑦ ▲고일룡⑦
▲고충준⑩ ▲곽순태⑩ ▲곽태균⑦ ▲곽계근⑦
▲구석근⑦ ▲권순식⑩ ▲권오석⑩ ▲권중연⑩
▲기창돈⑩ ▲김건희⑦ ▲김경석⑦ ▲김경일⑦
▲김경진⑩ ▲김명민⑩ ▲김광일⑩ ▲김광준⑦
▲김기동⑦ ▲김기목⑩ ▲김대근⑩ ▲김대현⑦
▲김덕규⑩ ▲김동연⑦ ▲김두현⑦ ▲김명환⑦
▲김무도⑦ ▲김병교⑩ ▲김병규⑩ ▲김병열⑦
▲김병태⑦ ▲김상식⑩ ▲김성문⑦ ▲김성민⑩
▲김성수⑩ ▲김성진⑦ ▲김승기⑩ ▲김승준⑩
▲김연철⑦ ▲김영문⑩ ▲김영범⑩ ▲김영생⑩
▲김영식⑦ ▲김영진⑦ ▲김영철⑦ ▲김용식⑦
▲김용환⑩ ▲김우영⑦ ▲김용범⑦ ▲김유간⑦
▲김정기⑩ ▲김종락⑩ ▲김종성⑩ ▲김종의⑩
▲김주용⑦ ▲김진구⑩ ▲김진원⑦ ▲김창현⑦
▲김창훈⑩ ▲김채식⑩ ▲김철수⑦ ▲김철호⑦
▲김춘상⑦ ▲김태경⑦ ▲김태영⑦ ▲김택중⑦
▲김학세⑩ ▲김학천⑦ ▲김한석⑩ ▲김현준⑦
▲김형석⑩ ▲김형준⑦ ▲김환창⑦ ▲김희준⑩

▲남복규⑦ ▲남순열⑩ ▲남장수⑩ ▲남재도⑩
▲노삼학⑩ ▲노윤래⑩ ▲노홍규⑦ ▲노재호⑦
▲루시용⑩ ▲류인재⑩ ▲류정현⑩ ▲마호석⑦
▲맹기석⑩ ▲문동민⑩ ▲문종우⑩ ▲문창호⑦
▲박경린⑩ ▲박경호⑦ ▲박광표⑩ ▲박기서⑦
▲박달수⑦ ▲박문화⑩ ▲박민서⑩ ▲박민용⑩
▲박복흥⑩ ▲박석수⑩ ▲박성훈⑦ ▲박신지⑩
▲박영희⑩ ▲박용철⑩ ▲박우상⑩ ▲박원경⑩
▲박의동⑦ ▲박인규⑦ ▲박정대⑦ ▲박정우⑦
▲박종명⑦ ▲박주현⑦ ▲박진석⑩ ▲박찬정⑦
▲박현수⑦ ▲박학선⑦ ▲배영수⑦ ▲배익환⑦
▲배인호⑦ ▲배재희⑦ ▲배태룡⑦ ▲백시익⑦
▲백성하⑦ ▲백원자⑩ ▲변동필⑦ ▲변영희⑩
▲변희협⑩ ▲서완석⑩ ▲성일현⑩ ▲손영란⑩
▲손효원⑦ ▲송민립⑦ ▲송영두⑩ ▲송인규⑦
▲송재경⑩ ▲송주인⑩ ▲송주철⑦ ▲송진해⑦
▲송해은⑩ ▲송현석⑩ ▲신경호⑩ ▲신국범⑩
▲신기조⑦ ▲신동현⑩ ▲신선호⑩ ▲신정철⑦
▲신준현⑦ ▲신철영⑦ ▲신충섭⑦ ▲신태형⑦
▲신현식⑩ ▲신형준⑩ ▲신희균⑦ ▲신희명⑦
▲심용기⑦ ▲심일섭⑩ ▲심종인⑩ ▲심호섭⑩
▲안 인⑦ ▲안기원⑦ ▲안봉걸⑦ ▲안상섭⑩
▲안상희⑦ ▲안성호⑦ ▲안용모⑦ ▲안주수⑦
▲양근수⑦ ▲양문규⑦ ▲양종식⑦ ▲염성용⑩
▲염태준⑦ ▲오경식⑩ ▲오명섭⑩ ▲오상운⑦
▲오장수⑦ ▲오창석⑦ ▲오치남⑦ ▲오희선⑩
▲우영하⑦ ▲유범상⑦ ▲유우근⑦ ▲유인상⑩
▲유대용⑩ ▲유택노⑩ ▲윤남진⑦ ▲윤봉섭⑦
▲윤석민⑦ ▲윤석열⑦ ▲윤세환⑩ ▲윤영수⑦
▲윤우석⑦ ▲윤은원⑩ ▲윤종규⑩ ▲윤한상⑩
▲은준표⑩ ▲이건형⑩ ▲이경기⑩ ▲이경보⑩
▲이경태⑩ ▲이근명⑦ ▲이근용⑦ ▲이길형⑦
▲이대우⑩ ▲이덕기⑩ ▲이덕림⑩ ▲이덕열⑦
▲이도영⑩ ▲이동권⑦ ▲이동규⑦ ▲이동범⑦
▲이동선⑦ ▲이명렬⑩ ▲이명일⑦ ▲이명조⑩
▲이명화⑦ ▲이민규⑩ ▲이방원⑩ ▲이복춘⑩

▲이봉오⑩ ▲이삼형⑩ ▲이상국⑩ ▲이상춘⑦
▲이석준⑩ ▲이선계⑩ ▲이성래⑦ ▲이수복⑦
▲이승동⑩ ▲이승복⑩ ▲이승준⑩ ▲이연주⑦
▲이영필⑦ ▲이용우⑦ ▲이용훈⑩ ▲이우일⑦
▲이원구⑩ ▲이의택⑦ ▲이인열⑩ ▲이재원⑦
▲이재욱⑩ ▲이재현⑩ ▲이재원⑦ ▲이재환⑩
▲이재훈⑩ ▲이정하⑦ ▲이종길⑦ ▲이종락⑦
▲이종래⑦ ▲이종원⑦ ▲이지랑⑦ ▲이창섭⑦
▲이창희⑦ ▲이창훈⑩ ▲이태동⑩ ▲이현호⑦
▲이형근⑦ ▲이형승⑦ ▲이호수⑦ ▲이화준⑦
▲이환수⑦ ▲이효일⑦ ▲이희달⑦ ▲이희영⑦
▲임동신⑩ ▲임미나⑩ ▲임석현⑩ ▲임성빈⑩

▲임승진⑦ ▲임지택⑦ ▲장경원⑦ ▲장기수⑦
▲장기주⑦ ▲장민석⑩ ▲장시영⑦ ▲장해성⑦
▲장현갑⑦ ▲전갑문⑦ ▲전상규⑦ ▲전우직⑦
▲전주영⑦ ▲전준수⑩ ▲전창영⑦ ▲전춘석⑦
▲전홍우⑦ ▲정광옥⑩ ▲정기로⑩ ▲정동섭⑩
▲정방언⑦ ▲정부성⑩ ▲정상욱⑦ ▲정연원⑩
▲정영희⑩ ▲정우식⑩ ▲정유나⑦ ▲정윤진⑦
▲정인성⑦ ▲정재영⑦ ▲정재운⑩ ▲정재인⑦
▲정철진⑦ ▲정호호⑩ ▲정지권⑦ ▲정태현⑦
▲정해준⑦ ▲조규홍⑦ ▲조무재⑦ ▲조수인⑦
▲조용재⑩ ▲조육연⑦ ▲조익식⑩ ▲조정호⑩
▲조태환⑩ ▲조창근⑦ ▲조형래⑦ ▲주명로⑦
▲주성철⑦ ▲주원택⑩ ▲지 준⑦ ▲지형섭⑦
▲치원갑⑩ ▲채규일⑩ ▲최광등⑩ ▲최경영⑦
▲최경진⑦ ▲최광보⑩ ▲최동규⑦ ▲최복철⑦
▲최상진⑦ ▲최상호⑩ ▲최성환⑩ ▲최신주⑩
▲최성립⑩ ▲최영남⑦ ▲최영태⑩ ▲최영택⑦
▲최인규⑩ ▲최정동⑩ ▲최준수⑦ ▲최준식⑦
▲최재석⑦ ▲최홍식⑩ ▲최후근⑦ ▲추현출⑦
▲편준근⑦ ▲한동수⑩ ▲한상명⑦ ▲한상조⑦
▲한선화⑩ ▲한정섭⑩ ▲한철중⑩ ▲허 윤⑦
▲허성규⑦ ▲허태림⑦ ▲홍국남⑩ ▲홍규식⑩
▲홍순일⑦ ▲홍재경⑩ ▲홍재훈⑩ ▲홍찬호⑩
▲홍희희⑩ ▲홍희선⑩ ▲황장연⑩ ▲황정태⑦
▲황철수⑩

◇農科大學

▲강경원⑦ ▲강대건⑦ ▲고홍석⑦ ▲공성재⑩
▲구본길⑦ ▲권병구⑦ ▲권오섭⑦ ▲권원중⑦
▲구대섭⑦ ▲김갑덕⑩ ▲김경수⑩ ▲김경하⑩
▲김권수⑩ ▲김규석⑦ ▲김대경⑩ ▲김동태⑩
▲김영국⑩ ▲김영기⑩ ▲김영배⑩ ▲김영상⑩
▲김영수⑩ ▲김재근⑦ ▲김재권⑦ ▲김정기⑦
▲김정기⑩ ▲김정호⑩ ▲김종국⑩ ▲김종덕⑩
▲김종수⑩ ▲김준평⑩ ▲김철영⑦ ▲김태학⑦
▲김현영⑩ ▲김호택⑦ ▲나상수⑦ ▲남기환⑩
▲노의래⑩ ▲맹덕수⑦ ▲민두식⑩ ▲박경석⑩
▲박성희⑩ ▲박승걸⑦ ▲박용옥⑩ ▲박용재⑩
▲박원규⑦ ▲박창규⑦ ▲반성환⑩ ▲배준선⑦
▲서병문⑦ ▲서정락⑩ ▲서정선⑩ ▲서병영⑩
▲송재천⑩ ▲송종관⑩ ▲송현숙⑦ ▲신대식⑩
▲심성섭⑩ ▲심용섭⑦ ▲안건용⑩ ▲오현승⑦
▲오홍수⑩ ▲우상호⑩ ▲원용택⑦ ▲유광일⑦
▲유근영⑦ ▲유명하⑩ ▲유범식⑦ ▲유상호⑦
▲유영준⑩ ▲유위종⑩ ▲유우상⑦ ▲유재영⑦
▲유현근⑩ ▲윤기영⑩ ▲윤우성⑦ ▲윤종섭⑦
▲이계홍⑦ ▲이관호⑩ ▲이기순⑦ ▲이대연⑦
▲이덕원⑦ ▲이도천⑦ ▲이병래⑩ ▲이병목⑦
▲이복남⑩ ▲이봉태⑩ ▲이상직⑩ ▲이이연⑦
▲이정재⑦ ▲이종호⑦ ▲이진희⑩ ▲이창복⑦
▲이창우⑦ ▲이춘영⑦ ▲이형주⑦ ▲임병기⑦
▲임용택⑦ ▲임재원⑩ ▲장시출⑦ ▲장영순⑦
▲장정수⑦ ▲전기영⑩ ▲전승규⑩ ▲전우방⑦
▲정선욱⑩ ▲정세진⑦ ▲정시식⑩ ▲정정민⑩
▲정조래⑦ ▲정진국⑦ ▲정창태⑦ ▲정대수⑩
▲정현재⑩ ▲조성지⑩ ▲조성환⑩ ▲주기석⑦
▲지근진⑦ ▲천기민⑦ ▲최광석⑩ ▲최낙환⑩
▲최민철⑦ ▲최승조⑦ ▲최영규⑦ ▲최영주⑦
▲최여환⑩ ▲한상봉⑩ ▲한승국⑦ ▲한현수⑦
▲한화섭⑩ ▲현호언⑦ ▲홍갑선⑩ ▲홍동의⑩
▲홍세진⑦ ▲홍인선⑩

◇法科大學

▲강 훈⑦ ▲강대신⑦ ▲강동세⑩ ▲강동호⑩
▲강복수⑩ ▲강석균⑩ ▲강상태⑩ ▲강원일⑩
▲강중운⑩ ▲강해룡⑦ ▲강호성⑦ ▲재창업⑩
▲고영한⑦ ▲고원준⑦ ▲고재화⑩ ▲공성국⑦
▲곽운직⑦ ▲곽태훈⑦ ▲구지업⑦ ▲구충회⑦
▲권경식⑦ ▲권대환⑦ ▲권병일⑦ ▲권순일⑦
▲권영국⑦ ▲권영로⑩ ▲권영성⑩ ▲권영일⑩
▲권오기⑦ ▲금병대⑩ ▲김 명⑦ ▲김 현⑩
▲김경림⑦ ▲김광현⑩ ▲김광훈⑩ ▲김근대⑦
▲김기현⑦ ▲김기형⑩ ▲김기형⑩ ▲김동현⑦
▲김범규⑩ ▲김상국⑦ ▲김상배⑦ ▲김상욱⑦
▲김성수⑩ ▲김세준⑦ ▲김승평⑩ ▲김연훈⑦
▲김영환⑦ ▲김용기⑩ ▲김용지⑦ ▲김윤성⑦
▲김윤수⑦ ▲김재를⑩ ▲김재준⑩ ▲김재현⑦
▲김재형⑩ ▲김중상⑩ ▲김진영⑩ ▲김창국⑩
▲김창국⑩ ▲김태규⑦ ▲김태우⑦ ▲김태욱⑦
▲김현수⑦ ▲김형두⑩ ▲김형성⑩ ▲김형수⑦
▲김환수⑩ ▲노생만⑩ ▲노영재⑦ ▲동상훈⑩
▲문성우⑦ ▲문원주⑩ ▲민석기⑦ ▲민정기⑦
▲박교선⑩ ▲박동현⑦ ▲박명식⑩ ▲박명영⑩
▲박민환⑦ ▲박범준⑩ ▲박상선⑩ ▲박성원⑩
▲박승만⑩ ▲박영열⑦ ▲박용선⑩ ▲박윤명⑩
▲박인환⑩ ▲박종익⑩ ▲박태경⑩ ▲박행용⑦
▲박현태⑩ ▲박홍우⑦ ▲배대순⑦ ▲배재욱⑩
▲백인기⑩ ▲백인창⑦ ▲변재승⑦ ▲부구욱⑦

◇文理科大學

▲강기년⑩ ▲강주화⑦ ▲고정택⑩ ▲권오득⑩
▲권용중⑦ ▲권태승⑩ ▲김강용⑦ ▲김건준⑦
▲김경진⑦ ▲김경화⑦ ▲김경환⑦ ▲김광식⑩
▲김규원⑦ ▲김기봉⑩ ▲김덕령⑩ ▲김명환⑩
▲김묘옥⑦ ▲김무창⑦ ▲김병호⑦ ▲김상근⑦
▲김상진⑦ ▲김억환⑩ ▲김영식⑩ ▲김영진⑦
▲김영철⑦ ▲김옥선⑩ ▲김용태⑦ ▲김윤환⑦
▲김일승⑩ ▲김재환⑩ ▲김정애⑦ ▲김정환⑩
▲김대수⑦ ▲김지현⑩ ▲김진원⑩ ▲김창현⑦
▲나기용⑦ ▲나미려⑩ ▲남상규⑦ ▲노영립⑦
▲노혜경⑦ ▲노홍길⑩ ▲민석홍⑩ ▲민여숙⑦

▲박경호⑩ ▲박권상⑩ ▲박기성⑩ ▲박도순⑩
▲박명기⑩ ▲박순용⑩ ▲박영순⑩ ▲박옥준⑩
▲박용길⑩ ▲박재권⑦ ▲박태남⑦ ▲박태원⑩
▲배기성⑩ ▲배인하⑩ ▲백영근⑩ ▲부정애⑦
▲서범주⑩ ▲서세창⑦ ▲서원석⑦ ▲서정욱⑦
▲소상영⑩ ▲손문자⑦ ▲손정규⑩ ▲송덕진⑦
▲송용진⑦ ▲송인찬⑩ ▲송창기⑦ ▲신영철⑦
▲심상걸⑩ ▲심영호⑩ ▲심재형⑩ ▲인병섭⑩
▲안상환⑩ ▲안원원⑦ ▲안운선⑩ ▲안표순⑩
▲안화영⑦ ▲양 정⑦ ▲양은승⑦ ▲어한수⑦
▲오세영⑩ ▲오현승⑩ ▲오홍자⑩ ▲원복중⑦
▲유순애⑦ ▲유지현⑦ ▲윤대인⑦ ▲윤생남⑦
▲윤임규⑩ ▲윤정목⑦ ▲윤호미⑩ ▲윤홍근⑦
▲이 건⑦ ▲이건무⑩ ▲이경문⑩ ▲이광렬⑦
▲이규철⑩ ▲이규일⑦ ▲이규호⑦ ▲이극찬⑩
▲이근수⑦ ▲이금세⑩ ▲이기남⑦ ▲이달수⑦
▲이도영⑦ ▲이동익⑩ ▲이명승⑩ ▲이상섭⑩
▲이상희⑩ ▲이선숙⑦ ▲이영석⑩ ▲이용우⑦
▲이우철⑦ ▲이재익⑩ ▲이정란⑩ ▲이정복⑩
▲이종명⑩ ▲이종현⑩ ▲이찬구⑦ ▲이찬재⑩
▲이택주⑦ ▲이해남⑦ ▲이항렬⑩ ▲이현석⑦
▲이희용⑩ ▲장석환⑩ ▲장영수⑦ ▲장윤걸⑩
▲장종표⑩ ▲장호원⑦ ▲전대식⑦ ▲전도을⑩
▲정기명⑩ ▲정도영⑦ ▲정명세⑩ ▲정삼윤⑩
▲정성재⑦ ▲정연국⑩ ▲정영의⑩ ▲정한규⑦
▲정해용⑦ ▲정희성⑩ ▲조봉계⑩ ▲조성식⑩
▲조순문⑦ ▲조용주⑦ ▲조유전⑩ ▲조정제⑩
▲조현영⑩ ▲주강수⑩ ▲진건정⑦ ▲치주환⑦
▲채홍기⑦ ▲최 홍⑦ ▲최동락⑦ ▲최상규⑦
▲최원상⑩ ▲최영희⑩ ▲최용옥⑩ ▲최정도⑩
▲최정지⑩ ▲최진영⑩ ▲한기목⑩ ▲한달용⑩
▲한영호⑦ ▲허영목⑩ ▲홍성진⑦ ▲홍순모⑩
▲홍승국⑦ ▲홍원희⑦ ▲황병선⑦ ▲황용수⑩
▲황원희⑩ ▲황운석⑩ ▲황정식⑦

◇美術大學

▲강남미⑦ ▲곽대영⑦ ▲구은영⑩ ▲구혜선⑩
▲권영숙⑩ ▲권영우⑦ ▲권혁복⑩ ▲김경숙⑦
▲김선미⑩ ▲김영미⑦ ▲김종화⑩ ▲김충경⑩
▲김태욱⑦ ▲김형주⑦ ▲나경문⑩ ▲남 철⑦
▲노숙자⑩ ▲박경희⑦ ▲박상민⑩ ▲박항숙⑦
▲심숙자⑩ ▲원승덕⑦ ▲윤재준⑦ ▲윤형실⑩
▲이규환⑩ ▲이기환⑦ ▲이민익⑦ ▲이명재⑩
▲이상희⑦ ▲이영애⑦ ▲이은경⑦ ▲이종목⑩
▲이태영⑩ ▲임승자⑩ ▲장성란⑦ ▲장용주⑩
▲장재일⑦ ▲정선화⑩ ▲조정에⑦ ▲천진희⑩
▲최아영⑦ ▲최애경⑦ ▲최예심⑦ ▲홍동식⑦

◇法科大學

▲강 훈⑦ ▲강대신⑦ ▲강동세⑩ ▲강동호⑩
▲강복수⑩ ▲강석균⑩ ▲강상태⑩ ▲강원일⑩
▲강중운⑩ ▲강해룡⑦ ▲강호성⑦ ▲재창업⑩
▲고영한⑦ ▲고원준⑦ ▲고재화⑩ ▲공성국⑦
▲곽운직⑦ ▲곽태훈⑦ ▲구지업⑦ ▲구충회⑦
▲권경식⑦ ▲권대환⑦ ▲권병일⑦ ▲권순일⑦
▲권영국⑦ ▲권영로⑩ ▲권영성⑩ ▲권영일⑩
▲권오기⑦ ▲금병대⑩ ▲김 명⑦ ▲김 현⑩
▲김경림⑦ ▲김광현⑩ ▲김광훈⑩ ▲김근대⑦
▲김기현⑦ ▲김기형⑩ ▲김기형⑩ ▲김동현⑦
▲김범규⑩ ▲김상국⑦ ▲김상배⑦ ▲김상욱⑦
▲김성수⑩ ▲김세준⑦ ▲김승평⑩ ▲김연훈⑦
▲김영환⑦ ▲김용기⑩ ▲김용지⑦ ▲김윤성⑦
▲김윤수⑦ ▲김재를⑩ ▲김재준⑩ ▲김재현⑦
▲김재형⑩ ▲김중상⑩ ▲김진영⑩ ▲김창국⑩
▲김창국⑩ ▲김태규⑦ ▲김태우⑦ ▲김태욱⑦
▲김현수⑦ ▲김형두⑩ ▲김형성⑩ ▲김형수⑦
▲김환수⑩ ▲노생만⑩ ▲노영재⑦ ▲동상훈⑩
▲문성우⑦ ▲문원주⑩ ▲민석기⑦ ▲민정기⑦
▲박교선⑩ ▲박동현⑦ ▲박명식⑩ ▲박명영⑩
▲박민환⑦ ▲박범준⑩ ▲박상선⑩ ▲박성원⑩
▲박승만⑩ ▲박영열⑦ ▲박용선⑩ ▲박윤명⑩
▲박인환⑩ ▲박종익⑩ ▲박태경⑩ ▲박행용⑦
▲박현태⑩ ▲박홍우⑦ ▲배대순⑦ ▲배재욱⑩
▲백인기⑩ ▲백인창⑦ ▲변재승⑦ ▲부구욱⑦

▲서규영⑩ ▲서상수⑦ ▲서승안⑦ ▲서승일⑦
▲서창훈⑩ ▲성달용⑦ ▲성맹문⑩ ▲성문용⑦
▲성봉경⑩ ▲성창모⑦ ▲소진철⑩ ▲손기호⑩
▲손영탁⑦ ▲손주찬⑦ ▲송기복⑩ ▲송상규⑩
▲송운재⑩ ▲신 신⑦ ▲신근식⑦ ▲신명훈⑦
▲신봉식⑩ ▲신성후⑩ ▲신용욱⑦ ▲신용환⑦
▲심규철⑩ ▲심명수⑩ ▲심상철⑩ ▲심인숙⑩
▲심재갑⑩ ▲심창섭⑦ ▲안병근⑦ ▲안병환⑦
▲안영도⑩ ▲안재홍⑦ ▲안종혁⑦ ▲양영석⑦
▲양인석⑦ ▲여훈구⑦ ▲염동희⑩ ▲염인섭⑦
▲오경락⑩ ▲오규원⑦ ▲오기평⑦ ▲오승철⑩
▲오오현⑩ ▲오홍주⑦ ▲우의형⑦ ▲유영상⑩
▲유영하⑩ ▲윤상목⑩ ▲윤성근⑦ ▲윤영철⑦
▲윤종근⑩ ▲윤종현⑩ ▲윤한중⑩ ▲이 준⑩
▲이건형⑩ ▲이기섭⑦ ▲이기원⑦ ▲이기창⑩
▲이동식⑦ ▲이민찬⑦ ▲이법복⑩ ▲이병수⑦
▲이상환⑦ ▲이석범⑩ ▲이석희⑦ ▲이수길⑩
▲이수영⑦ ▲이승용⑦ ▲이영구⑦ ▲이영재⑦
▲이용수⑦ ▲이용창⑦ ▲이재원⑦ ▲이정식⑦
▲이제재⑦ ▲이찬진⑦ ▲이창복⑦ ▲이춘원⑩
▲이형하⑦ ▲이희진⑦ ▲이희철⑦ ▲임성권⑩
▲임영민⑦ ▲임완규⑦ ▲임진섭⑩ ▲임철홍⑦
▲장용락⑦ ▲정강원⑦ ▲정경영⑩ ▲정계성⑦
▲정구환⑦ ▲정성호⑩ ▲정의종⑩ ▲정인용⑦
▲정종현⑩ ▲정창호⑦ ▲정대세⑦ ▲정현국⑦
▲정희운⑩ ▲조광재⑩ ▲조승형⑦ ▲조용석⑩
▲조우현⑩ ▲조정규⑦ ▲조종환⑦ ▲조현룡⑩
▲조현수⑦ ▲조홍식⑦ ▲진철목⑩ ▲치광용⑦
▲천기필⑦ ▲최동규⑦ ▲최병룡⑩ ▲최세영⑦
▲최영홍⑦ ▲최재훈⑦ ▲최현탁⑦ ▲한 용⑩
▲한정수⑦ ▲한영수⑦ ▲허택일⑦ ▲현규호⑦
▲현순도⑦ ▲호영진⑦ ▲홍순영⑦ ▲홍원기⑦
▲홍주관⑦ ▲황도연⑦ ▲황봉환⑦ ▲황상규⑦
▲황선당⑩ ▲황영옥⑩ ▲황인규⑩ ▲황일호⑩
▲황태영⑦ ▲황형모⑦

◇師範大學

▲강경은⑩ ▲강신포⑦ ▲강희동⑦ ▲고병철⑩
▲곽형기⑦ ▲구영주⑦ ▲구인환⑦ ▲권경인⑩
▲권경중⑦ ▲권경홍⑩ ▲권성진⑦ ▲권한수⑦
▲권형준⑦ ▲김경자⑦ ▲김경호⑩ ▲김국태⑩
▲김귀식⑩ ▲김귀화⑩ ▲김기정⑩ ▲김남욱⑩
▲김덕빈⑦ ▲김도수⑩ ▲김동찬⑩ ▲김동필⑦
▲김명수⑦ ▲김병연⑦ ▲김봉규⑩ ▲김봉호⑦
▲김봉희⑩ ▲김상일⑩ ▲김상천⑩ ▲김상호⑦
▲김석규⑦ ▲김성하⑩ ▲김수신⑦ ▲김순매⑦
▲김순실⑦ ▲김승재⑦ ▲김식중⑩ ▲김인신⑦
▲김안중⑦ ▲김영애⑦ ▲김영찬⑩ ▲김영철⑦
▲김영훈⑦ ▲김용광⑦ ▲김윤애⑩ ▲김인숙⑩
▲김인표⑩ ▲김재영⑦ ▲김재호⑦ ▲김정기⑦
▲김정순⑦ ▲김종규⑦ ▲김종기⑩ ▲김주환⑦
▲김죽희⑩ ▲김준환⑦ ▲김지선⑦ ▲김창걸⑦
▲김창철⑩ ▲김천식⑦ ▲김철규⑦ ▲김충규⑦
▲김지형⑦ ▲김태연⑦ ▲김태진⑦ ▲김현수⑦
▲김혜경⑦ ▲나상준⑦ ▲남병원⑩ ▲남복희⑩
▲노상문⑦ ▲당현숙⑩ ▲민영오⑩ ▲박관호⑦
▲박상일⑩ ▲박성권⑦ ▲박승희⑩ ▲박영우⑦
▲박유성⑩ ▲박운서⑦ ▲박인근⑦ ▲박인자⑦
▲박종근⑦ ▲박진영⑦ ▲박춘식⑩ ▲방효정⑩
▲백병기⑩ ▲백정호⑩ ▲변영희⑦ ▲변희준⑦
▲서운수⑦ ▲서의식⑦ ▲서정선⑦ ▲소진광⑦
▲손연수⑩ ▲손훈민⑩ ▲송영재⑩ ▲송일용⑦
▲송재식⑩ ▲송재욱⑦ ▲송춘영⑦ ▲신관규⑦
▲신명자⑦ ▲신범영⑩ ▲신병찬⑦ ▲신언철⑦
▲신영범⑦ ▲신창호⑦ ▲신철중⑦ ▲신태복⑩
▲신희명⑦ ▲심광환⑦ ▲심상범⑦ ▲심상필⑦
▲심재식⑩ ▲심춘섭⑩ ▲안광화⑦ ▲안건강⑦
▲안선준⑦ ▲안주희⑦ ▲인재봉⑦ ▲양현희⑦
▲여태용⑦ ▲연대성⑦ ▲오건주⑦ ▲오진경⑦
▲우인섭⑦ ▲유근숙⑦ ▲유오진⑦ ▲유옥현⑦
▲윤명희⑩ ▲윤은숙⑦ ▲윤은숙⑦ ▲이강석⑦
▲이건범⑦ ▲이경희⑦ ▲이길섭⑦ ▲이기중⑦
▲이명순⑦ ▲이문자⑦ ▲이병무⑦ ▲이병호⑦
▲이승렬⑩ ▲이영배⑦ ▲이영숙⑦ ▲이영주⑦

▲이완식⑤ ▲이용정④ ▲이우복② ▲이인규⑤
▲이인지⑤ ▲이재성⑥ ▲이재승⑦ ▲이재희⑦
▲이정호⑦ ▲이종희⑥ ▲이중석⑥ ▲이찬교⑤
▲이철구⑤ ▲이훈상⑥ ▲이홍중⑤ ▲임복희④
▲임석득④ ▲임옥진⑥ ▲임향진⑥ ▲임혜옥⑤
▲장경태⑦ ▲장동우⑦ ▲장병환⑤ ▲장우익⑤
▲장종택⑤ ▲장호민⑥ ▲전래수⑤ ▲전영협⑥
▲전종대⑦ ▲전효준⑤ ▲정두현④ ▲정민진⑤
▲정상규⑦ ▲정인용⑦ ▲정일동⑤ ▲정일섭⑥
▲정일영⑥ ▲조봉지④ ▲조영자⑦ ▲조원형⑤
▲조익선④ ▲조정제⑦ ▲조지현⑥ ▲조철원⑤
▲조희식⑤ ▲차영남⑥ ▲최강문⑥ ▲최갑순⑤
▲최문성⑦ ▲최범선⑥ ▲최상렬⑥ ▲최수옥⑤
▲최영기⑥ ▲최재진⑥ ▲최태준⑦ ▲허상기⑦
▲한기상⑥ ▲한만순⑥ ▲한상길⑦ ▲한정길⑦
▲한진수② ▲한현옥⑥ ▲한철규⑦ ▲한기순⑦
▲홍경식④ ▲홍근일⑦ ▲홍동은④ ▲홍철근⑦
▲황남룡③ ▲황승희⑦ ▲황영란④ ▲황인승⑦
▲황해복③

◇商科大學

▲강낙원⑤ ▲강동구⑦ ▲강문수⑦ ▲강영주⑥
▲계영희⑥ ▲고경식⑥ ▲고명환⑤ ▲구명준⑥
▲구영보⑦ ▲권영두⑥ ▲권영식⑦ ▲기병태⑦
▲김경모⑥ ▲김관채⑥ ▲김규식⑤ ▲김기영⑥
▲김기준⑤ ▲김길환⑥ ▲김대영⑥ ▲김두환⑤
▲김문수⑥ ▲김병호⑥ ▲김보인⑤ ▲김상은⑦
▲김성호⑥ ▲김안용⑦ ▲김영상④ ▲김용섭⑤
▲김유일⑦ ▲김인건⑥ ▲김재현④ ▲김정기⑥
▲김정남⑥ ▲김중호⑥ ▲김중수⑤ ▲김진우⑥
▲김진호⑥ ▲김진화⑥ ▲김진홍⑥ ▲김창순⑥
▲김철배③ ▲김철영⑦ ▲김홍배④ ▲김홍배⑦
▲나재락⑦ ▲류태환⑤ ▲문성택⑦ ▲문성영⑥
▲문태철⑥ ▲문학모⑥ ▲민병훈⑥ ▲박 철⑥
▲박대용⑦ ▲박성출⑥ ▲박세진⑥ ▲박승규⑤
▲박용덕⑥ ▲박용민⑦ ▲박용옥⑦ ▲박재범⑤
▲박정호⑥ ▲박종달⑥ ▲박한수⑦ ▲박창천⑥
▲박해용⑥ ▲박효민⑦ ▲방종석⑤ ▲배준규⑥
▲백창기⑥ ▲백운상⑦ ▲사공일⑥ ▲서정호④
▲석대정⑥ ▲설성복⑥ ▲성기호④ ▲성백규⑥

▲성욱기⑦ ▲소만호⑦ ▲손근홍⑦ ▲손현주②
▲손홍근⑥ ▲송인덕⑥ ▲송재관⑦ ▲송정위⑥
▲송호수⑤ ▲송화섭⑦ ▲신영일⑥ ▲신찬수⑥
▲인국신⑥ ▲안기수⑦ ▲양재국⑤ ▲어영권⑥
▲여구연⑤ ▲염후길⑦ ▲오갑수⑦ ▲오경민⑦
▲오세현⑥ ▲오정현⑥ ▲우명환⑦ ▲우의제⑦
▲우일균⑥ ▲유노상④ ▲유방창⑥ ▲유시영⑦
▲유준상④ ▲유창복⑥ ▲윤 호⑥ ▲윤길현⑥
▲윤남렬⑥ ▲윤복현⑥ ▲윤석하⑥ ▲윤정희⑤
▲이동수⑥ ▲이두한⑥ ▲이병주⑦ ▲이봉서⑤
▲이석순⑥ ▲이선호④ ▲이성위⑥ ▲이승우⑦
▲이영걸⑥ ▲이영주⑦ ▲이영택⑥ ▲이운우⑦
▲이은면⑤ ▲이재규⑦ ▲이재원⑤ ▲이정상⑥
▲이좌영⑥ ▲이태용⑦ ▲이형조⑤ ▲이희원⑥
▲임영철⑥ ▲임종두⑥ ▲임지순④ ▲임호운⑦
▲장병구⑥ ▲전문준⑦ ▲전창기⑥ ▲정 단⑦
▲정광홍⑥ ▲정기홍⑥ ▲정덕화⑥ ▲정문모⑥
▲정영주⑥ ▲정영주⑦ ▲정정숙⑤ ▲조규용⑦
▲조승경⑤ ▲조원기④ ▲조지현⑥ ▲조한영④
▲조희경⑦ ▲좌승희⑦ ▲주덕화④ ▲주원식④
▲주주삼④ ▲지창수⑤ ▲진운규⑦ ▲채정렬⑥
▲최명해⑦ ▲최병로⑥ ▲최복렬⑥ ▲최연종⑦
▲최용호④ ▲최운철⑥ ▲최익재⑦ ▲최재현⑥
▲허진수⑥ ▲한덕수⑦ ▲한봉희⑦ ▲한의수⑦
▲한장욱⑥ ▲허병우⑦ ▲현임종⑥ ▲홍순태⑥
▲황의길⑥

◇獸醫科大學

▲강승원⑥ ▲곽우연⑥ ▲권안식⑦ ▲권호운⑦
▲김경희⑥ ▲김교형⑥ ▲김동신⑥ ▲김영철⑥
▲김영춘⑥ ▲김윤수⑦ ▲김이섭⑤ ▲김재관⑥
▲김중대⑥ ▲김진호⑥ ▲김환경⑤ ▲민동수⑥
▲박만택⑥ ▲박상표⑥ ▲박정홍⑦ ▲박종명⑥
▲성낙준⑥ ▲송도영⑥ ▲송시환⑦ ▲송영보⑥
▲신도균⑥ ▲신태섭⑥ ▲안영결⑤ ▲우영재⑥
▲원문상⑥ ▲윤대규⑥ ▲윤석순④ ▲이덕주④
▲이병상⑥ ▲이성모⑥ ▲이정락⑥ ▲이정인⑦
▲이종화⑦ ▲이진호⑥ ▲전은진④ ▲정대규⑥
▲조본형⑦ ▲조형기⑥ ▲최명근⑥ ▲최희인⑤
▲한기영⑥ ▲한홍율⑥ ▲황명수⑦

◇藥學大學

▲강삼식⑥ ▲강신일⑥ ▲공현표⑦ ▲곽영의⑥
▲구창모⑦ ▲김진식④ ▲김규형⑦ ▲김만국⑥
▲김민정⑥ ▲김병택⑥ ▲김상미⑥ ▲김상수⑦
▲김성진⑥ ▲김수진⑤ ▲김연수⑥ ▲김의식⑥
▲김인경⑦ ▲김정숙⑥ ▲김정희⑥ ▲김조한⑥
▲김창근⑦ ▲김효준⑦ ▲남기혁⑥ ▲박동호⑥
▲박성주⑥ ▲박수일⑥ ▲박수희⑥ ▲박창서⑦
▲박현일⑥ ▲방창화④ ▲배운상⑥ ▲서광수⑥
▲서동화⑦ ▲신성복⑦ ▲안병목⑦ ▲안양진⑦
▲염문경⑥ ▲오도근④ ▲오권환⑦ ▲유도봉⑦
▲유성열⑦ ▲유영옥⑥ ▲윤승로⑥ ▲이규송⑦
▲이문형⑥ ▲이상은⑥ ▲이상호⑦ ▲이석목⑦
▲이세복⑥ ▲이원희⑦ ▲이정희⑦ ▲이종규⑦
▲이주형⑦ ▲이혜숙⑦ ▲장정일⑦ ▲장인조⑤
▲조미정⑦ ▲조현영⑥ ▲채동규⑥ ▲채영주⑥
▲천승훈⑦ ▲최경희⑥ ▲현영우⑦ ▲홍기석⑦
▲홍성현⑥

◇音樂大學

▲고순자⑤ ▲공정원⑥ ▲구본희⑦ ▲구위자⑦
▲권한준⑥ ▲김경옥⑥ ▲김동수⑥ ▲김명희⑥
▲김미경⑥ ▲김민지⑥ ▲김봉화⑥ ▲김수혜④
▲김영철⑥ ▲김영희⑦ ▲김용갑⑥ ▲김용환⑥
▲김원란⑥ ▲김원식⑥ ▲김은희⑥ ▲김정수⑥
▲김태정⑥ ▲김혜경⑥ ▲김혜숙⑥ ▲김혜자⑥
▲류정희⑥ ▲문병찬⑥ ▲박지영⑥ ▲박현선⑥
▲방통일⑦ ▲배덕운⑥ ▲송명익④ ▲송영선⑦
▲송정민⑥ ▲신장애⑥ ▲신혜주⑥ ▲안덕수⑥
▲안종산⑥ ▲양경영⑥ ▲양연섭⑦ ▲어수희⑥
▲염의경⑥ ▲오양구⑥ ▲유봉우⑦ ▲유선종⑦
▲이기진⑦ ▲이대구⑥ ▲이명희⑦ ▲이혜자⑥
▲이방숙⑥ ▲이상룡⑥ ▲이상희⑥ ▲이신우⑥
▲이영자⑥ ▲이영주⑥ ▲이재원⑦ ▲이정지⑥
▲이종길⑥ ▲이종남⑥ ▲이혜진⑥ ▲이훈복⑥
▲임현정⑦ ▲장혜실⑦ ▲전신주⑦ ▲정애련⑦
▲정재운⑥ ▲조동재⑥ ▲조운정⑦ ▲채숙지⑥
▲최 충⑥ ▲최순복⑥ ▲최종원⑥ ▲한정숙⑥
▲한정영⑥ ▲한혜자⑥ ▲허남영⑥ ▲홍명희⑦
▲황은준⑥

◇醫科大學

▲강대희⑦ ▲강진구⑥ ▲강진영⑦ ▲강희륜⑥
▲계수덕④ ▲고 흥⑦ ▲고광철⑥ ▲고영채⑥
▲고용린⑦ ▲구재철⑥ ▲금인섭④ ▲기민덕④
▲기정일⑥ ▲김구상⑥ ▲김길남⑦ ▲김동현⑦
▲김민석⑥ ▲김병국⑦ ▲김병엽⑥ ▲김상준⑦
▲김선이⑥ ▲김성수⑦ ▲김수경⑥ ▲김승경⑥
▲김영택⑥ ▲김영휘⑥ ▲김용진⑦ ▲김재면⑥
▲김재호⑥ ▲김종숙⑥ ▲김종정⑥ ▲김준재④
▲김진천⑥ ▲김진혁⑥ ▲김태운⑥ ▲김태진⑥
▲김홍준⑦ ▲김희중⑥ ▲나명훈⑥ ▲노명덕⑥
▲노상권⑥ ▲문일영⑦ ▲민영일⑥ ▲민원식⑥
▲민창기⑦ ▲박경수④ ▲박명식⑦ ▲박문선⑥
▲박성원⑥ ▲박소배⑦ ▲박영수⑥ ▲박정국⑥
▲박찬일⑥ ▲박현승⑥ ▲배진호⑥ ▲백구현⑥
▲서교일④ ▲서병태⑥ ▲서유현⑦ ▲서진수⑥
▲송계승⑥ ▲송선보⑦ ▲송운영⑥ ▲송현철⑦
▲신미자⑥ ▲신하규⑥ ▲신희섭⑦ ▲안상태⑦
▲안영천⑥ ▲양원용⑦ ▲양운준⑥ ▲여봉구⑥
▲유경상⑥ ▲유방환⑥ ▲유석희⑦ ▲유영해⑥
▲유은정⑦ ▲유재호⑥ ▲유형록⑥ ▲윤광선⑦
▲윤보현⑦ ▲이갑로⑦ ▲이경옥⑥ ▲이덕수⑥
▲이상호⑦ ▲이승남⑥ ▲이영우⑥ ▲이용일⑥
▲이운성⑦ ▲이인섭⑦ ▲이정빈⑦ ▲이종혁⑥
▲이찬배⑥ ▲이춘배⑥ ▲이택중⑥ ▲이호규⑥
▲이흥기⑥ ▲이홍복⑥ ▲임영선⑥ ▲임용철⑥
▲임재준⑥ ▲임현규⑥ ▲임현준⑥ ▲임홍철⑥
▲전지일⑥ ▲정남화⑥ ▲정동진⑦ ▲정문현⑥
▲정재혁⑥ ▲정진우⑥ ▲조덕환④ ▲조성수⑦
▲조수경⑥ ▲차 한⑥ ▲채인영⑥ ▲최덕영⑥
▲최덕환⑥ ▲최종섭⑥ ▲최석훈⑥ ▲최원영⑥
▲최윤식⑥ ▲최현진⑦ ▲한문식⑥ ▲한상룡⑦
▲함돈일⑥ ▲허민강⑥ ▲홍순관⑥ ▲홍순진⑥

▲홍승인⑥ ▲황순옥⑦ ▲황정민⑥

◇齒科大學

▲강병철⑥ ▲강수만⑥ ▲강정모⑥ ▲곽난희⑥
▲구본석⑥ ▲구연우⑥ ▲권학춘⑥ ▲금창현⑥
▲김관식⑦ ▲김기석⑦ ▲김명국⑥ ▲김명진⑦
▲김봉환⑥ ▲김용남⑦ ▲김용철⑥ ▲김우성⑥
▲김정복⑦ ▲김정자⑥ ▲김종우⑦ ▲김종택⑥
▲김종호⑥ ▲김진태⑥ ▲김창우⑥ ▲김철희⑦
▲김충배⑦ ▲김태영⑦ ▲김태우⑥ ▲김현태⑥
▲김화봉⑥ ▲김희진⑥ ▲노승화⑥ ▲노은희⑥
▲동방진⑥ ▲복성규⑦ ▲박경옥⑥ ▲박경준⑦
▲박기호⑥ ▲박덕상⑦ ▲박성철⑦ ▲박승우⑦
▲박인자⑥ ▲박정덕⑥ ▲박종만⑦ ▲박철성⑦
▲박찬영⑥ ▲박태원⑥ ▲박홍규⑦ ▲박희운⑥
▲서기진⑥ ▲신영국⑦ ▲손우성⑥ ▲송덕영⑦
▲송재현⑥ ▲신동인⑥ ▲신언일⑦ ▲신철수⑦
▲안경민⑥ ▲안규소⑦ ▲오경서⑥ ▲오명희⑥
▲오성근⑥ ▲오지연⑥ ▲우상두⑥ ▲유남수⑦
▲유현호⑥ ▲윤영수⑥ ▲윤임도⑦ ▲윤종구⑥
▲윤태희⑥ ▲이경수⑦ ▲이병태⑦ ▲이병현⑥
▲이봉호⑥ ▲이상표⑥ ▲이상훈⑥ ▲이승연⑦
▲이승은⑥ ▲이영중⑥ ▲이재신⑦ ▲이정식⑥
▲이정호⑥ ▲이종오⑥ ▲이종철⑥ ▲이충국⑦
▲이현석⑥ ▲임문식⑥ ▲장동재⑦ ▲장명우⑥
▲장묘안⑥ ▲정광조⑥ ▲정성창⑥ ▲정영한⑦
▲정찬형⑥ ▲정광남⑥ ▲조경석⑥ ▲조상범⑥
▲조인호⑦ ▲조종만⑥ ▲주광섭⑦ ▲주명자⑥
▲차민희⑥ ▲차혜영⑦ ▲천옥경⑥ ▲최대호⑦
▲최무송⑦ ▲최병락⑥ ▲최세원⑥ ▲최순철⑦
▲최영희⑥ ▲최은철⑥ ▲하국봉⑥ ▲한광수⑥
▲한금남⑥ ▲한석희⑥ ▲한충일⑥ ▲한희성⑥
▲홍금표⑥ ▲홍현식⑥ ▲황 준⑥

◇大學院

▲강기병⑦ ▲고세훈⑥ ▲권택호⑥ ▲김계수⑦
▲김기섭⑦ ▲김동선⑥ ▲김진수⑥ ▲문형근⑥
▲박경래⑥ ▲박갑수⑥ ▲박재영⑦ ▲박재홍⑥
▲박종렬⑦ ▲신용배⑥ ▲안현진⑦ ▲오연호⑥
▲유문환⑥ ▲윤성호⑥ ▲윤옥경⑦ ▲이기용⑥
▲이남기⑥ ▲이노준⑥ ▲이용빈⑥ ▲이익섭⑥
▲이정주⑥ ▲이흥수⑥ ▲임병민⑥ ▲장병수⑥
▲전진표⑥ ▲정기화⑦ ▲정병희⑥ ▲정재일⑥
▲조석준⑦ ▲한경희⑥

◇經營大學院

▲김종민⑥ ▲이강선⑦ ▲이병재⑥ ▲이성권⑥
▲이영희⑥ ▲전성용⑥ ▲조한욱⑦ ▲최원영⑥

◇教育大學院

▲최홍규⑥ ▲황현익⑥

◇保健大學院

▲김광현⑦ ▲김덕성⑦ ▲김영민⑥ ▲문혜리⑦
▲박남영⑥ ▲서인선⑥ ▲신하균⑥ ▲이영근⑥
▲이한구⑦ ▲정순조⑥ ▲최환영⑥

◇司法大學院

▲가재환⑦ ▲김적승⑥ ▲김종희⑦ ▲김차희⑥
▲남용희④ ▲정덕장⑦ ▲황상현⑥

◇新聞大學院

▲류선우⑥ ▲임희동⑦

◇行政大學院

▲김공환⑥ ▲김광영⑥ ▲김주섭⑦ ▲김준봉⑥
▲김환주⑥ ▲박재석⑦ ▲석영철⑦ ▲송장복⑦
▲이재호⑦ ▲정여철⑦ ▲정우철⑥ ▲채희성⑦
▲최종술⑦

◇環境大學院

▲김혜천⑥ ▲신종호⑥ ▲유철상⑦

◇최고산업전략과정

▲고귀선⑥ ▲공소열⑥ ▲권영규⑥ ▲권영후⑥

▲김 화② ▲김만하② ▲김상희④ ▲김수영②
▲김영수③ ▲김윤태⑥ ▲김창환③ ▲김정중⑥
▲김진성④ ▲김학문③ ▲김형술⑦ ▲김홍중⑥
▲남세현⑥ ▲문규철⑥ ▲박명남⑥ ▲박인서⑥
▲박창준⑥ ▲박재영⑥ ▲박창순⑥ ▲서영식⑥
▲신상기⑥ ▲신화철⑥ ▲신현준⑥ ▲심종덕⑥
▲안병수⑥ ▲안정환⑥ ▲안홍식⑥ ▲양주현④
▲오명균⑦ ▲오시덕⑦ ▲유각복⑤ ▲유은목⑥
▲유재필④ ▲윤기호⑥ ▲이 겹④ ▲이기종⑥
▲이동철⑥ ▲이명래⑥ ▲이상원⑥ ▲이상호⑥
▲이상희⑥ ▲이영삼⑥ ▲이옥수⑥ ▲이창규⑥
▲임석재② ▲장대훈⑥ ▲장병준⑦ ▲정병욱⑦
▲정병철⑥ ▲정운길⑥ ▲정유원⑥ ▲조원호⑥
▲최재오⑥ ▲최정호⑦ ▲한미화⑤ ▲함돈식⑥
▲한정원⑥ ▲홍순겸⑥ ▲황수천⑥

◇국가정책과정

▲가검노⑥ ▲곽응철⑥ ▲곽철중④ ▲김 철⑥
▲김광수④ ▲김도연⑥ ▲김병문⑥ ▲김복득⑥
▲김석균⑥ ▲김성민⑥ ▲김승영⑥ ▲김연수⑥
▲김용성⑥ ▲김용철⑥ ▲김인영⑥ ▲김정곤⑦
▲김재우⑦ ▲김지일⑥ ▲김충현⑥ ▲김형술⑥
▲김형희⑥ ▲남기춘⑥ ▲남봉환⑥ ▲남상해⑥
▲노희식⑥ ▲노희찬⑥ ▲문인갑⑥ ▲민태구⑥
▲박기철⑥ ▲박명환⑥ ▲박상규⑥ ▲박용암⑥
▲박재영⑥ ▲서정관⑥ ▲서정도⑥ ▲손일조⑥
▲손정식⑥ ▲안명숙⑥ ▲안준태⑥ ▲양창식⑥
▲오정근⑥ ▲오종태⑥ ▲유갑중⑥ ▲유병국⑥
▲유재우⑥ ▲유재필⑥ ▲이관범⑥ ▲이관표⑥
▲이군범⑥ ▲이근일⑥ ▲이길범⑥ ▲이남영⑥
▲이동호⑥ ▲이명원⑥ ▲이영건⑥ ▲이영기⑥
▲이정익⑥ ▲이종보⑥ ▲이종성⑥ ▲이지두⑥
▲이홍식⑥ ▲이희수⑥ ▲전형일⑥ ▲정동성⑥
▲조남조⑥ ▲조영표⑥ ▲조철권⑥ ▲지의택⑥
▲진인권⑥ ▲최갑진⑥ ▲최기문⑥ ▲최남진⑥
▲최순현⑥ ▲최재선⑥ ▲탁병오⑥

◇고급금융과정

▲강신학⑥ ▲고광석⑥ ▲고팔민⑥ ▲김복식⑥
▲김성모⑥ ▲김양기⑥ ▲김원현⑥ ▲김홍기⑥
▲도명순⑥ ▲도승호⑥ ▲류광희⑦ ▲박준석⑦
▲박현철⑥ ▲서갑석⑥ ▲서승원⑥ ▲서희석⑥
▲송창수⑥ ▲이계용⑥ ▲이병성⑥ ▲이상원⑥
▲이상호⑥ ▲이수현⑥ ▲이익수⑥ ▲임대석⑥
▲임우형⑥ ▲장인택⑥ ▲장재규⑥ ▲정순천⑥
▲조병현⑥ ▲조복행⑥ ▲진귀봉⑥ ▲허선구⑦

◇공기업고급경영자과정

▲공창두⑥ ▲김곤섭⑥ ▲김문희⑥ ▲김사문⑥
▲김석상⑥ ▲김용진⑥ ▲남궁원⑥ ▲리일영⑥
▲박대춘⑥ ▲배철호⑥ ▲서운호⑥ ▲선동우⑥
▲송기순⑥ ▲송세광⑥ ▲신준권⑥ ▲오득환⑥
▲이연배⑥ ▲이우진⑥ ▲이재능⑥ ▲정규호⑥
▲정민진⑥ ▲정용현⑥ ▲정지열⑥ ▲조규식⑥
▲조성우⑥ ▲함춘조⑥ ▲허 식⑥ ▲홍승일⑥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고재일⑥ ▲김경환⑥ ▲김성수⑥ ▲김수근⑥
▲김진오⑥ ▲민상금⑥ ▲박수환⑥ ▲박종득⑥
▲박주용⑥ ▲서선호⑥ ▲송달용⑥ ▲오원근⑥
▲윤 건⑥ ▲윤정섭⑥ ▲이수영⑥ ▲이용일⑥
▲이재창⑥ ▲임명수⑥ ▲전우대⑥ ▲정강희⑥
▲정해순⑥ ▲허 준⑥

◇가정간호수습과정

▲김영옥⑥ ▲채지연⑥

월 계: 120,660,000
누 계: 129,987,036

지면관계상 「최고경영자과정」
회비납부자는 다음호에 게재합
니다.

“동창회 신용카드, 지금 신청하세요”

〈발급기간 : 99년 3월 1일 ~ 3월 31일〉

개 인

◇人文大學

▲권진아⑥ ▲김선옥⑥ ▲나윤희⑥ ▲박재연⑥
▲송원용⑥ ▲이혜은⑥ ▲홍주연⑥

◇社會科學大學

▲김은의⑥ ▲이기봉⑥

◇自然科學大學

▲김승해⑥ ▲박상옥⑥ ▲박중서⑦ ▲박준영⑥
▲하연수⑥ ▲한지숙⑥

◇看護大學

▲김정순⑦

◇工科大學

▲김주민⑥ ▲박원희⑦ ▲손요찬⑦ ▲송효준⑦
▲전석호⑥ ▲최은석⑦

◇農科大學

▲김준우⑥ ▲김진화⑦ ▲노종열⑥ ▲박주영⑥
▲신동우⑥ ▲육현중⑥ ▲이대원⑥ ▲이충식⑥

▲이호재⑥ ▲정대수⑥ ▲차건완⑥

◇美術大學

▲김은주⑥

◇法科大學

▲김중구⑥ ▲양선숙⑥ ▲현규호⑥

◇師範大學

▲계범석⑥ ▲구창모⑥ ▲김성대⑥ ▲박병춘⑥
▲손나리⑥ ▲송영훈⑦ ▲여정필⑥ ▲최원희⑥

◇商科大學

▲강철규⑥

◇醫科大學

▲고건성⑦

◇大學院

▲김진경⑥ ▲박성준⑥ ▲박영철⑥ ▲유지희⑥
▲유한영⑥ ▲윤성철⑥ ▲이 순⑥ ▲홍금주⑥

◇최고경영자과정

▲이중삼④